

학내 총선 실시, 학생자치기구 새 옷 입다



지난 11월 28-29일 양일간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상상력인재학부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다. 지난 11월 5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2일 부터 27일까지 선거 유세가, 21일과 22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두 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투표는 ▲미래관 앞 ▲상상관

▲공학관 A동 ▲우촌관과 진리관 사이 ▲탐구관 총 5개 투표구에서 실시됐다.

제34대 총학생회 선거는 기호 1번 '등대', 기호 2번 '진(進)', 기호 3번 '하모니'까지 총 3팀이 입후보해 경선으로 진행됐다. 개표 결과 재적 인원 5,934명 중 3,260명(54.94%)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등대' 1,261명(38.68%), '진(進)' 789명(24.20%), '하모니' 1,048명(32.15%), 무효 162명

(4.97%)으로 기호 1번 '등대' 선거는 동분부이하 선분의 정호재(무역 4) 정희장 후보와 장예준(사회과학 2) 부희장 후보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제35대 총대의원회 선거는 단선으로 진행됐다. 개표 결과 대의원 69명 중 55명(79.71%)이 투표에 나섰으며, 찬성 43표(78.18%), 반대 11표(20.00%)로 '공명' 선분의 이은미(IT응용 3) 정희장 후보와 유정현(무역 3)

부의장 후보가 각각 총대의원장과 총대의원장에 당선됐다.

제36대 학생복지위원회 선거는 기호 1번 '또바기', 기호 2번 '지니' 총 2팀이 입후보해 경선으로 진행됐다. 개표 결과 재적 인원 5,934명 중 3,268명(55.04%)이 투표에 참여했다. 득표율은 '또바기' 1,673명(51.22%), '지니' 1,459명(44.67%), 무효 134명(4.10%)으로 기호 1번 '또바기' 선분의 박민수(컴공 2) 정위원장 후보와

박영선(문정 2) 부위원장 후보가 각각 학생복지위원장과 학생복지부위원장에 당선됐다.

한편, 제33대 동아리연합회 선거는 치러지지 못했다. 같은 동아리 소속의 정·부회장 후보자가 입후보해 후보 자격 미달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동아리연합회 보궐선거는 내년 치러질 계획이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지면안내

보도

2019 한성을 이끌 학생대표 결정돼

02



사회

총장 직선제, 대학 민주화 신호탄 될까

03



문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향수' 레시피

04

한성문학상

시 부문 당선작 <그림자> 소설 부문 가작 <그대와 맞잡은 두 손>

05~07



사람사

땅의 싱그러움을 당신의 식탁까지... '채소 소믈리에' 정소이

08



학술

공유와 존중, 그 속에서 '우리는 나아간다'

09



오피니언

의회장·낙산에 올라 등

10~11

기획

한꽃분 씨에게도 불이 옮겨요?

12



졸업유예제 내년부터 시행

19년 2월 졸업 예정자부터 12월 중 신청 가능, 2월 중 졸업유예 확정 통보

우리학교에 졸업유예제가 도입됐다. 졸업유예제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다. 지난 11월 2일, 학사지원팀은 졸업유예제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2019년 2월 졸업 대상자 중 '8학기 이상 등록했으면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재학생'은 12월 중에 졸업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조기졸업을 신청한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담당 부서와 사전에 상담해야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졸업유예 기간 내에는 등록금 납부 의무가 없으며 수강신청이 불가하다. 단, 학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졸업유예 신청은 우리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6월과 12월에 공지된다.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졸업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졸업가사정표와 졸업유예신청서, 수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종 졸업유예 여부는 졸업일 이전에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올해 12월에 졸업유예를 신청하면, 학사지원팀이 자격 요건을 심사해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가승인을 한다. 그 후 2월 초, 학위수여심의위원회의 졸업사정을 통과하면 졸업일 전에 졸업유예가 확정된다.

졸업유예제를 마련한 배경에 관해 이지형(학사지원팀) 차장은 "올해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졸업유예제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며 "재학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구직 활동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생이 졸업유예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학칙에서 정한 졸업 요건 충족여부에 따른 학적 상태

(충족 O, 미충족 X)

| 학칙에서 정한 졸업 요건 | | 졸업유예 신청 여부 | 학적 상태 | 비고 |
|---------------|-----------|------------|-------|-----------------|
| ①졸업 이수 학점 | ②학과 졸업 요건 | | | |
| O | O | 미신청 | 졸업 | |
| O | O | 신청 | 재학 |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 없음 |
| O | X | (신청 불가) | 수료 | |
| X | O | (신청 불가) | 재학 | 초과 학기, 등록금 납부 |
| X | X | (신청 불가) | 재학 | 초과 학기, 등록금 납부 |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졸업유예제가 법의 통제를 받게 됐으며, 대학이 졸업유예자에게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의무화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서 "개정 전 대학이 졸업유예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해 학교마다 등록금 징수 방식 및 규모가 상이했고,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수강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졸업유예제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1월부터 졸업유예제 관련 공문을 전국 대학교로 발송했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공문이 내려오기 전인 7월부터 졸업유예제를 준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 차장은 "다른 학교는 교육부가 지침을 내리고 나서야

제도를 준비했지만, 우리학교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대응해 왔다"고 언급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이 차장은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도를 마련한 만큼,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승 기자
yoohng@gmail.com

2019 한성을 이끌 학생대표 결정돼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제34대 총학 '등대' 선본 당선

제34대 총학생회(이하 총학)로 기호 1번 '등대' 선거운동본부의 정호재(무역 4) 정학생회장 후보가 총학생회장에, 장예준(사회과학 2) 부학생회장 후보가 부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정호재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부총학생회장 후보와 함께 열심히

준비해 후회 없는 선거를 치렀다. 학우들이 신뢰할 수 있는 총학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의 주요 공약은 ▲SNS를 통한 교내 이슈 대응 및 활동 내역 공개 ▲정기 간담회 개최 및 비교과 포인트 지급 ▲양질의 취업 특강 확충 ▲강의평가 열람기간 확대 ▲흡연부스 확대 등이다.

그중 '강의평가 열람기간 확대'에 대해 정 당선자는 "학생들의 수강권과 직결된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열람기간을 수강포기 기간 때까지 늘려 학우들이 수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제35대 총대 '공명' 선본 당선

제35대 총대의원회(이하 총대)로 '공명' 선거운동본부의 이은미(IT응용 3) 정의장 후보가 총대의원장에, 유정현(무역 3) 부의장 후보가 총대의원장에 당선됐다.

이은미 총대의원장 당선자는 "올해 총대의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겠다.

학교를 위해 일하는 총대의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공약을 이행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선 소감을 이야기했다.

이들의 주요 공약은 ▲일정의 체계화를 통한 대의원 편의 제공 ▲예산 편성 지침서 작성 및 공개 ▲감사 OT 추진 및 질문 카톡방 개설 ▲총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등이다.

'일정의 체계화를 통한 대의원 편의 제공'에 대해 이 당선자는 "대의원 대표로서 대의원에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열려



지난 11월 19일, 우촌관 앞 잔디광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기부 행사'가 열렸다. 본 행사는 사회적 공헌 및 지역 나눔 실현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담근 배추김치 600포기는 삼선동 일대 250 가구에 전달됐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제30회 방송제 성황리에 개최

지난 11월 21일, 상상관 계단식 로비에서 한성대학교 방송국(이하 HBS)이 제30회 방송제를 열었다. 이번 방송제에서는 '음식'에 관해 다루었으며,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구성했다.

1부에는 토크쇼 '당신의 디저트는?'이 마련됐다. 행사는 카페에서 디저트를 즐기고 있는 HBS 국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상영하고, 영상에 등장한 디저트를 관객에게 맛보이며 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부는 HBS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커피, 넌 누구냐?> ▲CF <위로> ▲단편영화 <22cm> 상영과 경품 추첨으로 꾸며졌다.

행사를 총괄한 이수하(CT 2) HBS 실무국장은 "방송제를 성공적으로 마쳐 후련하면서도 이번 방송제가 임기 중 치르는 마지막 행사라 섭섭하기도 하다. 이번 방송제를 통해 HBS를 더 많이 알릴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프레젠테이션 대회 시상식 진행

지난 12월 3일 본교 총장실에서 제12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시상식이 마련됐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1인 미디어', '메가트렌드', '병역특례' 등이었다. '포르테' 외 5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최우수 '포르테' ▲우수 '오예팀' ▲우수 '이예은' ▲장려 '김동훈' ▲장려 '송지웅' ▲장려 '이현희' 등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포르테'팀 조한성(영문 2) 학생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상혁(사교외표현교육과정) 교수는 "특정 주제에 개인의 깊은 사고가 더해져 더욱 활발한 논의가 가능했다"며 이번 대회를 평가했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본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가져

지난 12월 6일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2018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행사는 1부 '2018 총동문회 정기총회'와 2부 '2018 한성인의 밤'으로 구성됐다. 1부는 ▲개회사 ▲제25대 동문회 운영 성과 및 회계 보고 ▲제26대 동문회 활동 계획 보고 ▲임원 선임 ▲폐회사 순으로, 2부는 ▲개식사 ▲내·외빈 소개 ▲총동문회장 인사말 ▲이사장 축사 ▲교무처장 축사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치러진 취임식에서 권혁은 신임 총동문회장은 "앞으로 동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동문들이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져 학교 발전에 공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제36대 학복위 '또바기' 선본 당선

제36대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로 기호 1번 '또바기' 선거운동본부의 박민수(컴공 2) 정위원장 후보가 학생복지위원장에, 박영선(문정 2) 부위원장 후보가 학생복지부위원장에 당선됐다.

박민수 학생복지위원장 당선자는 "경선으로 치러진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을 느끼기도 했지만, 많은 학우들의 지지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우리를 지지해 준 학우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이들의 주요 공약은 ▲한성 문화인 프로젝트 ▲교내 안심 프로젝트 ▲동부지구연합 학복위 ▲마케팅 확대 ▲낙산 쉼터 ▲흡연부스 위치 안내 및 금연 캠페인이다.

그중 '한성 문화인 프로젝트'에 대해 박 당선자는 "짧은 글귀가 출력되는 문학 자판기를 학내에 설치해 학우들에게 소소한 힐링 타임을 선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3대 인문예술대 '하나' 선본 당선

제3대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이하 인문예술대) 학생회 선거 개표 결과, 재적 인원 1,262명 중 702명(55.62%)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득표율은 찬성 556표(79.20%), 반대 131표(18.66%), 무효 13표(1.85%)로 집계됐다. 이로써 '하나' 선거운동본부의 송원근(역사 3) 정회장 후보가 정학생회장에, 배유림(화학 2) 부회장 후보가 부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송원근 정학생회장 당선자는 "찬성 표는 믿음과 지지의 표시로, 반대 표는 경각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일하라는 표시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남겼다. 이들의 주요 공약은 ▲설문조사를 통한 정기적 피드백 ▲정기적 학생회비 지출내역 공개 게시 ▲SNS 활성화 ▲학업·문화생활 장려 등이다.

송 당선자는 "공약은 학생회와 학우들 간 약속이라 생각한다. 임기 동안 네 가지 공약을 꼭 지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SNS 활성화' 공약에 대해 배유림 당선자는 "올해 인문예술대 문화국장을 맡으면서 느꼈던 아쉬움을, 내년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나 페이스북 페이지 등 다양한 방안으로 보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제21대 공과대 '솔찬' 선본 당선

제21대 IT공과대학(이하 공과대) 학생회 선거 개표 결과, 재적 인원 1,725명 중 964명(55.88%)이 투표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득표율은 찬성 758표(78.63%), 반대 169표(17.53%), 무효 37표(3.84%)로 발표됐다. 이로써 '솔찬' 선거운동본부의 최강현(전자 3) 정회장 후보가 정학생회장에, 김정훈(IT 2) 부회장 후보가 부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최강현 정학생회장 당선자는 "단과대 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된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학우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이들의 주요 공약은 ▲야식 및 간식 사업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한 소통 ▲공대인 토크미팅 등이다.

그중 '공대인 토크미팅'에 대해 최 당선자는 "공과대 체질을 열어 모든 학번이 소속감을 갖고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23대 사과대 '화양연화' 선본 당선

제23대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학생회 선거 개표 결과, 재적 인원 1,550명 중 793명(51.16%)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득표율은 찬성 621표(78.31%), 반대 138표(17.40%), 무효 34표(4.29%)로 집계됐다. 이로써 '화양연화' 선거운동본부의 김태영(무역 3) 정회장 후보가 정학생회장에,

김유진(사회과학 2) 부회장 후보가 부학생회장에 당선됐다.

김태영 정학생회장 당선자는 "학우들의 투표로 당선된 만큼 그 믿음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의 공약은 ▲SNS를 통한 정보 공유 활성화 ▲분기별 전자 설문조사 실시 ▲사과대 단합활동 복지사업 유지 ▲트랙제와 학부제 간 안정화 등이다.

그중 'SNS를 통한 정보 공유 활성화'에 대해 김유진 부학생회장 당선자는 "트랙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최종 트랙을 선택할 때, 선배들로부터 정보를 얻기 힘든 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제2대 디자인대 '나래' 선본 당선

제2대 디자인대학(이하 디자인대) 학생회 선거 개표 결과, 재적 인원 1,099명 중 587명(53.41%)이 투표에 나선 것으로 발표됐다. 득표율은 찬성 506표(86.20%), 반대 64표(10.90%), 무효 14표(2.38%) 순이었다. 이로써 '나래' 선거운동본부의 김연희(패션 3) 정회장 후보가

정학생회장에, 도현진(뷰티 2) 부회장 후보가 부학생회장에 당선됐다.

김연희 정학생회장 당선자는 "학생회를 학우들과 잘 꾸려 나갈테니 학우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이들의 공약은 ▲스터디 소모임 지원 ▲디자인대 MT ▲복지사업 등이다.

그중 '복지사업'에 대해 김 당선자는 "복지사업 중 일부인 '프린트 사업 및 예약제'는 올해 디자인대 기획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아쉬움을 보완한 공약이다. 이를 통해 학우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3대 상상력인재학부 '새솔' 선본 당선

제3대 상상력인재학부(이하 상상력) 학생회 선거 개표 결과, 재적 인원 298명 중 203명(68.12%)이 표를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득표율은 찬성 160표(78.81%), 반대 36표(17.73%), 무효 7표(3.49%)로 집계됐다. 이로써 '새솔' 선거운동본부의 차주은(사회과학 2) 정회장

후보가 정학생회장에, 차원식(상상력 1) 부회장 후보가 부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차주은 정학생회장 당선자는 "임기 동안 공약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의 주요 공약은 ▲선·후배 간 교류 확대 ▲상상력 프로그램 활성화 ▲상상력 달력 제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활성화 등이다.

그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활성화'에 대해 차 당선자는 "여러 단과대와 결합하는 우리 학부의 특성에 맞춰 학우들이 타 단과대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정란

최경희(글로벌패션산업학부) 교수
최 교수는 'ITAA(International Textile and Apparel Association)'에서 '2018 Best Paper Award'를 수상했다.

정성훈(기계전자공학부) 교수
정 교수는 '2018년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손경연(융복합교양교육과정) 교수
손 교수는 서울데일리뉴스와 공동으로 <손 교수의 취업준비 꿀팁>을 연재하고 있다.

공호근(융복합교양교육과정) 교수
공 교수는 ▲한국가스공사 1급 승진 역량평가위원 ▲한국에너지공단 승진 역량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총장 직선제, 대학 민주화 신호탄 될까

상향식 직선제 채택 대학 다수...“학내 구성원 의견에 무게 실어야”

지난 11월 13일, 안드레 동국대학교(이하 동국대) 전 총학생회장이 총장 직선제 도입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안 전 회장은 “한대식 총장은 개인 명예훼손으로 학생들을 고소했으며 그 비용을 교비에 서 지출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려 학생들을 탄압했다”며 한 총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 총장 직선제 도입을 요구했다.

‘총장 직선제’ 전환을 외치는 학교는 동국대만이 아니다. 총장 직선제는 대학 전체 구성원이 직접 투표로 총장을 선출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드러난 후로 대학가까지 민주화 의식이 전이되며 물꼬를 튼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학사관리 비리로 사임된 이후인 2017년, 이화여대는 사립대학 중 최초로 학내 구성원이 총장 후보자를 직접 투표로 추천하는 총장 직선제를 채택해 시행했다. 이를 계기로 성신여자대학교, 상지대학교(이하 상지대) 등 일부 사립대학도 연이어 총장 직선제를 선언했다.

정권 교체를 기점으로 번져가는 총장 직선제
기존 대학 사회에서 총장 선출은 교수 중심이었던 것이었다. 그러자 투표로 후보를 추천하는 수준일 뿐 최종 결정은 국립대의 경우 교육부가, 사립대의 경우 이사회가 담당해 왔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 공금 횡령, 인사 비리 등 비민주적인 운영 실태가 밝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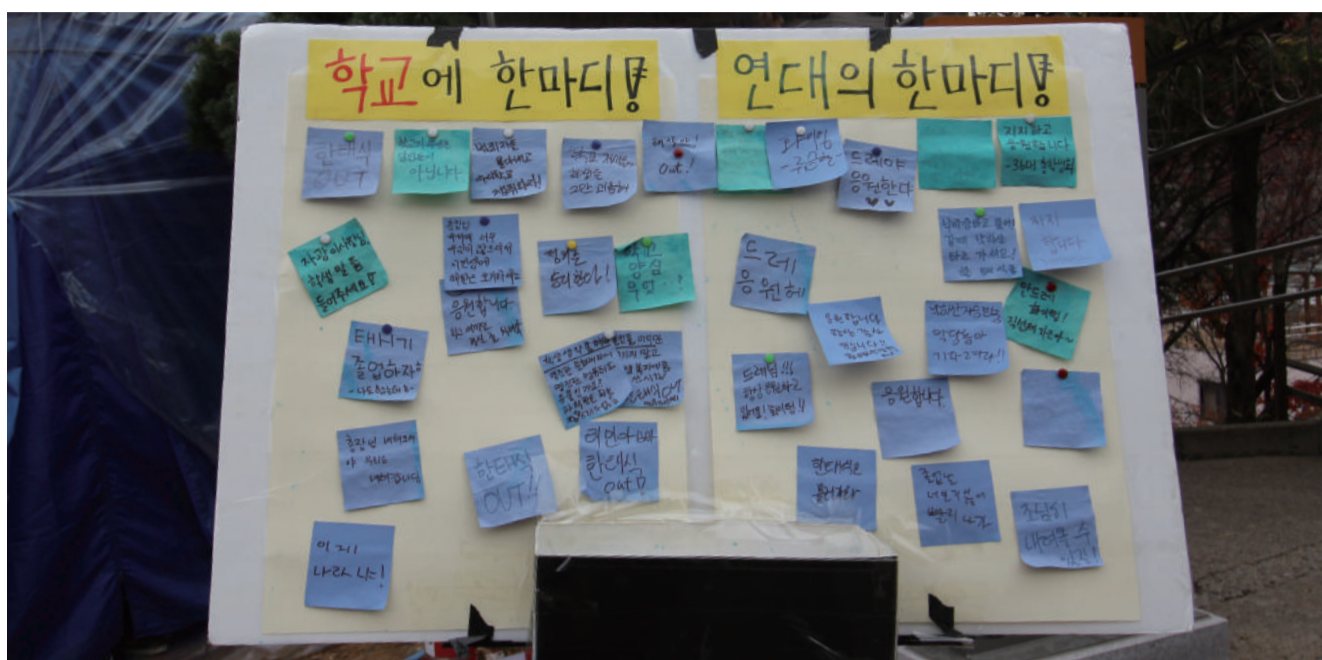
기 시작했다. 최근 총장 직선제를 실현한 상지대 역시 총장이 인사권 남용으로 구속되어 ‘비리사학’이라는 오명을 썼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 내에서도 “총장을 학생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더해 작년 8월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 국립대 총장 선출 자율화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총장 직선제 도입에 활력이 붙었다. 이로 인해 올 한 해 동안 국립, 사립 할 것 없이 총장 공석 상태에 있던 많은 대학들이 직선제를 통해 빠르게 총장을 선출했다.

이에 대해 이승준(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은 “이전 정부 시절, 국립대의 총장 임용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자신들과 신념이 맞지 않는 총장의 임명을 거부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그래서 여러 국립대 총장직이 공석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제재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총장 선출 자율화를 선언하고 대학 구성원에게 총장 선출을 맡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이사회 의 최종 선임 권한 제한해야
총장 직선제는 크게 상향식 직선제와 하향식 직선제로 나뉜다. 상향식 직선제는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이 투표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이사회가 최종 선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반면, 하향식 직선제는 교육부·이사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학내 구성원이 투표를 통해



▲만해광장에 위치한 11m 높이의 조명탑에서 안드레 동국대학교 전 총학생회장이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며 무기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재학생들도 지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최종 선출하는 방식이다. 하향식 직선제를 채택하는 대학은 공통적으로 폐쇄적인 문화를 지니고 있거나, 이사회에 힘이 막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향식 직선제는 처음부터 학내 구성원의 의견보다는 교육부·이사회 의 의견에 무게를 두고 시행되므로, 현재 총장 직선제를 시행 중인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상향식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향식 직선제가 무조건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금까지 시행된 상향식 직선제는 총장 후보자의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아, 지지율에 관계없이 2순위

혹은 3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최종 결정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점을 매우기 위해 김 전 장관이 언급한 ‘순위를 명시한 후보자 추천’이 보완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학내 구성원이 선거로 추천된 복수의 후보자에 득표율 순위를 매겨, 교육부 및 이사회 의 총장 최종 선임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이 사무국장은 “학내 구성원이 총장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두면, 교육부가 1순위 후보 대신

2, 3순위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된다. 만약 그들이 2, 3순위 후보를 선임하려 한다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학내 구성원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학내 구성원의 총장 선출 투표 반영 최소·최대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표 반영률이 보장되지 못하면 교육부·이사회에서 유권자 수를 줄여 형식적인 직선제를 치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대학생 10명 중 6명 ‘혼전동거 찬성’ 편견과 정책 부재 여전해

최근 대학 사회에서 혼전동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7년 학원복음화협의회가 발표한 《2017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생 및 대학원생 1,000명 중 67%가 ‘혼전동거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36.1%)보다 30.9% 증가한 수치다.

혼전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는 비단 대학 사회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9,000명 중 56.4%가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6년(48.0%)보다 8.4% 증가

한 것으로, 그 비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이 같은 혼전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실제 동거율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 정현숙(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사회 전반에서 동거를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동거가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지는 못할 것”이라며 “실제 대학생들이 혼전동거로 결혼을 대체할 것인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혼전동거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와 정책’에서는 동거 경험이 있는 253명 중 26.9%가 동거 사실을 ‘전혀 공개하지 않음’에, 66.8%가 ‘일부에게 공개’에 답했다. 동거 사실을 완전히 공개했다는 응답은 6.3%에 그쳤다.

이들이 동거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편견’ 때문이다. 상기 응답자는 동거를 비공개하는 이유에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볼까(48.5%) ▲부모·가족 및 주변의 우려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35.4%)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서(13.9%) 순으로 답변했다.

동거 커플을 힘들게 하는 것은 편견만이 아니다. 그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 또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응답자 중 45.1%가 정부 혜택 및 서비스 등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혼인신고한 부부가 아니라 제외되었다(34.2%) ▲사회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31.6%)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못 받았다(27.2%) 등을 차별 사례로 꼽았다.

이에 정 교수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법적 혼인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동거하는 커플은 제도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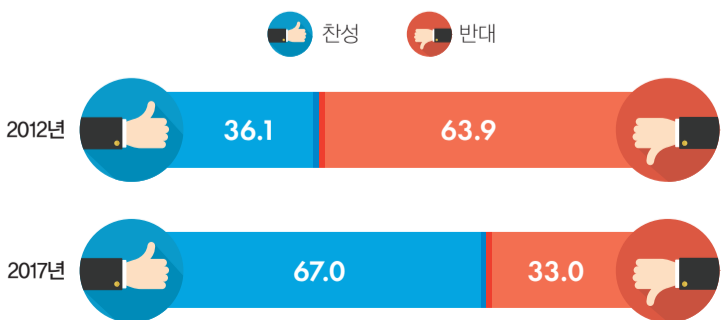
한편,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2018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가구에 대한 차별(혼인가구 대비) 해소 및 제도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기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대학생 혼전 동거 인식

(단위: %)



*자료: 2017 한국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제공: 지앤컴리서치

기자가 요리하는 이슈 브런치

소년법 보호하는 『소년법』 폐지 가능할까?

최근 인천에서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피해 학생을 옥상에 끌고 가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죽음을 자살로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한 여중생이 친한 친구에게 성폭행 당해 자살한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등 청소년 강력범죄 사건이 최근 들어 다수 발생했다. 이처럼 죄질이 나쁜 청소년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자 소년 범죄자를 보호하는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소년법』이란 만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에게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 조치를 내릴 것을 규정하는 법이다. 소년 범죄자에게는 ‘처벌’ 목적이 아닌 ‘교화’ 목적의 법적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특히,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청소년 강력범죄의 가해자들이 『소년법』의 보호 아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청원 게시판을 『소년법』 폐지를 요청하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게시자들은 “소년 범죄자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처럼 보복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행 『소년법』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 폐지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을 폐지하면 만 14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형과 중선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UN아동권리협약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도 “『소년법』 폐지가 소년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김재윤(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늘렸지만 강력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형벌의 경중이 범죄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증거”라며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인지 판단 능력이 미약하다. 따라서 범죄를 방지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중형을 내려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보호 처분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아 기자

mhbt0330@naver.com



'향수(Nostalgia)'를 불러일으키는 '향수(Perfume)' 레시피



P
E
R
F
U
M
E

어린 시절 아버지의 스킨 향기처럼 냄새는 추억에 잠기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다. 특히, 사람마다 다른 체취는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인상을 남기기도 한다. 후각은 인간의 오감 중 가장 예민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코 끝을 자극하는 향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머무른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향'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내게 어울리는 향수를 더해 조금 더 아름다운 향으로 기억되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그러나 내게 어울리는 향수를 찾는 일이란 쉽지 않다. 막상 로드숍이나 드러그스토어 한편에 마련된 향수 코너에 가서 여러 향수를 시험하다 보면 이 향이 그 향 같고, 그 향이 저 향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시험의 늪에서 '향수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착각에 빠진 향수 왕초보를 위해 지금부터 넓고 깊은 향수의 세계로 인도한다.

오, 오드 뭐라고?

향수는 향이 지속되는 정도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가장 농도가 짙은 '퍼퓸'은 향수 원액 15~30%를 함유하고 있어, 분사 후 최대 12시간 동안 향이 유지된다. 향수 원액이 8~15% 희석된 '오드 퍼퓸'은 약 7시간 동안 향이 지속되며,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애용되는 '오드 뚜왈렛'은 5~8%의 원액을 포함해 3~4시간 동안 은은한 향을 풍긴다. 이에 비해 주로 남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오드 코롱'은 향수 원액을 3~5% 함유하고 있어 1~2시간 정도 향이 지속된다. 오드 코롱의 일종인 '사위 코롱'은 향수 원액이 1~3%로 낮아 이름 그대로 사위 후 가볍게 뿌리기에 적합하다.

처음과 끝이 다른 향기

향수의 향은 '노트'의 변화에 따라 세 단계로 구성된다. 노트란 한 가지 원료 혹은 배합된 여러 가지 원료에서 느낄 수 있는 후각적 인상을 말한다. '탑 노트'는 향수를 뿌리자마자 바로 맡을 수 있는 향이다. 주로 휘발성이 강한 향료들이 탑 노트를 결정한다. 감귤계 향취의 '시트러스 노트', 과일 향을 띠는 '플루티 노트', 싱그러운 풀잎 느낌을 지닌 '그린 노트' 등의 향료가 많이 사용된다.

'미들 노트'는 가장 오랫동안 선명하게 맡을 수 있는 향기로 향수의 핵심을 맡고 있다. 대체로 꽃 향기가 나는 향료인 '플로럴 노트'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외에

약초 냄새를 지닌 '허벌 노트', 꿀 향기가 나는 '허니 노트' 등이 미들 노트를 담당한다.

'베이스 노트'는 어느 정도 잔향감이 있어 살냄새를 은은하게 꾸며주는 향료들로 구성된다. 사향노루의 사향선을 건조시켜 만든 '머스크 노트', 향유고래 토사물에서 나는 냄새를 재현한 '엠버 노트', 나무의 향기를 담은 '우디 노트' 등이 베이스 노트로 어울린다.

나에게 맞는 향수 찾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향수 중 한 제품을 고르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강미선(미센트) 조향사가 몇 가지 팁을 전수했다.

강 조향사는 "보통 20대 초반 남성은 상쾌한 향기를 지닌 향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감귤류에서 향을 추출한 시트러스 노트가 들어간 향수를 고르면 된다. 여성에게는 살구나 블랙베리를 탑 노트로 가진 향수를 추천한다. 우디 노트가 함유된 향수의 경우, 향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종종 메스꺼움을 호소하고, 바닐라와 코코넛 향은 우리나라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므로 피하는 게 좋다. 초보자라면 상쾌한 향을 지닌 향수를 접한 후에 점차 부유한 향기를 띠는 향수로 바뀌어 가길 바란다. 그러면 충분히 다양한 향기를 즐기며 향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향수는 계절을 탄다. 따뜻한

계절에 맞는 향이 있는가 하면, 추운 계절에 어울리는 향이 있다. 향수 회사에서 시기에 따라 홍보하는 제품을 살펴보면 봄·여름에는 시원하거나 상큼한 향기의 제품을, 가을·겨울에는 포근한 향기의 제품을 내세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계절별로 어울리는 향수의 향조에 대해 소개했다. 덧붙여 그는 "봄·여름에는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땀을 많이 흘려 체취가 강해지는 시기이므로 시트러스나 그린 노트가 함유된 향수를 쓰면 땀 냄새를 억제해 기본을 한층 가볍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조향사는 계절에 맞는 꽃이나 과일 등의 향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을·겨울에는 추위진 기후에 맞춰 따뜻한 이미지를 가진 무화과 향이나 머스크 향기, 나무 향기 등 향의 톤을 낮춘 향수를 사용하면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향수 사용법 '알짜 TMI'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향수 사용법은 손목에 뿌려서 귀 뒤에 문지르는 것이다. 귀 뒤편처럼 맥박이 뛰는 곳은 다른 신체부위보다 온도가 높아 향수의 향기가 잘 확산되게 하므로 향기를 더욱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여성이라면 치마 끝이나, 머리카락 끝에 향수를 뿌리는 것도 좋다. 단, 변색 위험이 있으므로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을 때 셔드라미 쪽에 향수를 분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강 조향사는 "향수를 즐기는 것에 정서는 없다. 꽃 향이 나는 향수를 메모지에 분사해서 책에 꽂아두기도 하고, 상큼한 향기의 향수를 화장실 공기 중에 분사해 악취를 없애기도 하고, 잠들기 전에는 포근한 느낌의 향수를 이불 위에 뿌리는 등 본인의 생활패턴에 맞추어 즐겁고 편하게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1 오래된 향수, 안 쓰는 향수는 디퓨저로 만들 수 있다. 준비물은 빈 유리병, 소독용 알코올, 꼬치용 나무막대만 있으면 된다. 만드는 법은 3:7로 향수와 알코올을 섞으면 끝. 짙은 향을 원하면 향수 비율을 늘리고, 막대는 밖으로 많이 나와 있어야 향이 잘 퍼진다.
2 시험지는 믿을 게 못 된다. 사실 향수를 구매하기 전 시험지에 뿌려서 맡는 향과 실제 우리가 사용할 때 나는 향은 확연히 다르다. 그 이유는 신체의 유분과 향수가 섞이면 또 다른 향을 만들어 내기 때문. 그러니 시험할 때는 항상 자신의 피부에 뿌려보는 것을 추천한다.

초록빛 소쿠리가 피어낸 '숲'과 마주하다

'어머! 저게 뭐야?' 성북동 일대에 숲이 들어섰다. 멀리서도 존재감을 과시하는 이 숲은 설치미술가 최정화 작가의 전시 작품 <숲>이다. 이번 전시는 성북구립미술관 주 최로 지난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한 성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복자교 아래에서 진행된다. 복자교 아래에 들어서면 초록색 플라스틱 소쿠리로 만들어진 '인공 소쿠리 숲'을 볼 수 있다. 이 설치물은 나무 줄기를 형상화한 파이프 기둥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소쿠리가 위아래로 맞닿은 채 꾸며져 있다. 소쿠리를 한눈에 바라보니 마치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보인다. 숲을 연상케 하는 소쿠리 나무들의 향연은 인공과 자연 간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문다. 재료로 쓰인 소쿠리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인공적이지만, 형태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나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작품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소쿠리를 소재로 활용해 예술이 우리의 일상과 멀리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에 대해 김경민(성북구립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소쿠리 나무들은 마치 거대한 자연의 모습인 양 도심 한가운데에서 인공 숲을 조성하고 있다. 특유의 조형미와 역발상을 통해 작가의 개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울창한 인공 소쿠리 숲길을 따라 쪽 걷다 보면 플라스틱 컵과 그릇, 작은 구슬 등을 와이어로 길게 엮은 작품을 볼 수 있다. 지난 3월, 성북동 주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정화 작가와 주민 200여 명이 함께 만든 작품이다. 이는 형형색색의 플라스틱 그릇과 가정에서 사용했던 컵, 물병, 그릇 등 버려진 소모품을 붙여 만든 최정화 작가의 대표작 <알케미(Alchemy)>를 모티프로 재구성했다.

이 작품에 대해 김 학예연구사는 "예술가와 주민이 작품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공공미술의 가치를 되짚어보고자 만들었다"며 "이번 전시공간이 관람객에게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이번 전시는 전시기간 후반부에 다들수록 더욱 특별함을 갖게 된다. 전시가 진행되는 1년여간, 복자교 인근에 실제 자연 '숲'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현재 최정화 작가와 조경 전문가는 소쿠리로 구현된 인공 숲이 있는 복자교 인근에 직접 나무를 심어 실제 자연 '숲'을 완성해나가는 중이다. 인공과 자연 두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연의 '숲'을 만들어가는 전시 프로젝트 <숲>. 이 전시가 끝나는 내년 봄, 생기를 머금은 나무가 가득 자리날 복자교 인근 풍경이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정수민 기자
sf1228@naver.com



1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미세하게 줄어드는 소쿠리 크기에서 최정화 작가의 섬세함을 눈치챌 수 있다.
2 플라스틱 컵 주둥이와 바닥이 서로 번갈아가며 맞물려 일렁이는 물결처럼 유연한 곡선을 그려낸다.

제133회 한성문학상

“ 펜 을 문 직 여 라 ,
당 신 의 감 성 으 로 ”

| 시 | 부 | 문 | 소 | 설 | 부 | 문 |
|-----|---|-------------|-----|---|-------------------------|---|
| 수 상 | | 신경호(한국어문 3) | 수 상 | | 최병찬(부동산 3) | |
| 심 사 | | 문태준 시인 | 심 사 | | 김인경(송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초빙교수 | |
| 삽 화 | | 김예현(CT 2) | | | 정원채(사고와표현교육과정) 학술연구원 | |
| | | | 삽 화 | | 김성현(시각영상 4) | |



그림자

신경호

1
 그해 여름날
 아버지와 내가 살던 집은
 뿔뿔히 이빨이 되었다
 뿔뿔히 무자비하게 뿔뿔히 이빨은
 다른 집 지붕 위로 던져졌다

시골서 보낸 반찬들은
 파리 떼가 되었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2
 메리야스만 입으신 아버지께서
 커다란 스타일러 박스를 주워오셨다
 께죄죄한 보폭으로,
 그림자를 남기지 않으며
 그렇게

3
 난 시끄러운 콘크리트 밑 그늘에 멍하니 서있었다
 그곳엔 내 그림자도 아버지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나의 계절들이 철거됐다

| 시 | 부 | 문 | 심 | 사 | 평 |
|---|---|---|---|---|---|
|---|---|---|---|---|---|



문태준 시인

1994년 '문예중앙'으로 등단. 시집으로 <수련거리
 는 뒤란>, <맨발>, <가재미>, <그늘의 발달>, <먼 곳>,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등이 있음. 노작문학상, 소셜시문학상,
 동서문학상, 유심작품상, 목월문학상 등 수상.

한성문학상에 응모한 작품들을 읽었다. 개성적인 작
 품들이 많았다. 마지막까지 경합한 작품들은 이진호
 (경영 4) 학생의 <왕궁> 외 4편, 김보섭(경영 3) 학생의

<몽상하는 환상곡> 외 3편, 피상민(국문 3) 학생의 <멀치
 는 금방 마르고> 외 4편, 신경호(한국어문 3) 학생의
 <낙원으로> 외 4편이었다.

<왕궁>은 권좌가 무너진 아버지를, 가난한 아버지
 를 익살맞게 그린 작품으로 처연함이 느껴졌다. <몽
 상하는 환상곡>은 낙조의 공간을 상실의 공간으로
 인식해 표현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위대한 항로(航
 路)와 고상한 산로(山路)로 이어져있다고 보았다. 마
 음을 공간화한 점이 특별했다. <멀치는 금방 마르고>
 외 4편의 작품 가운데, 시 <누끼>에서 "별써 하늘이
 잘못 인쇄된 용지처럼 거뭇거뭇해서"라고 쓴 시행을
 주목했다. 이처럼 대상에 대한 좋은 유비(類比)는 시
 를 빛나게 한다. 고심 끝에 <낙원으로> 외 4편의 작
 품들 가운데 <그림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시
 는 기억의 집이 강제적으로 철거되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심정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흔적조
 차 없게 된 집의 모습에는 한 개인의 무너진 내면이
 투영되어 있다. 이 학생이 함께 응모한 <낙원으로>도
 유니크한 작품이었음을 밝혀둔다. 수상자에게 축하
 의 인사를 전한다.

| 시 | 부 | 문 | 수 | 상 | 소 | 감 |
|---|---|---|---|---|---|---|
|---|---|---|---|---|---|---|



신경호(한국어문 3)

참 뻔하다 뻔한 말이지만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쁘고
 아직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말로만 듣고, 상상
 으로부터 그려온 한성문학상이라니요. 평소 좋아하고
 관심을 가져온 시 부문에서 상을 받은 것도 기쁘지만,
 주머니가 궁한 보통의 대학생인지라 상금을 받는 것
 이 특히나 기쁩니다.

사실 응모 마감일까지도 작품을 내야 될지 말아
 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
 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당선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결
 국엔 응모를 해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상은 제
 게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
 겠습니다.

당선작 <그림자>는 철거민들의 아픔을 말하려는 시
 인데, 제 자취방 앞 오래되어 보이는 주택이 철거되는
 것을 보면서 연필을 잡았습니다. 저는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묘사에 부족함이 있고, 그들의 아픔에 대한 공
 감을 잘 이끌어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읽고 한 번이라도 그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매년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한성대신문사에 계신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1학년 때
 부터 뻔질거리던 제게 시가 뭔지 알게 해주신 한성대
 의 멋진 시인 강호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마
 지막으로, 문학 소모임 정류장 파이팅! 엄마, 아빠 사
 랑해요!

소설 부문 가작

그대와 맞잡은 두손

최병찬

가로등은 흐릿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집으로 혼자 갈 수 없다는 유민을 배웅해줬다. 유민의 집에 도착하자 나는 유민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 했다. 그때 내 허리에 감촉이 느껴졌다.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은 두 팔. 얼굴을 내 등에 파묻은 채 유민은 내게 가지 말라며 졸랐다. 나는 유민의 손을 잡은 채 유민의 집으로 향했다.

잠에서 깬을 때 따사로운 햇살이 창문 틈으로 나를 비추고 있었다. 내 옆에는 이불로 몸을 두른 유민이 굳히 잠자고 있었다. 유민에게 다가갈까 얼굴을 맞대려 했는데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감촉이 들었다. 의구심이 들어 유민을 덮은 이불을 들춰볼 때 나는 보았다.

그곳에는 사람이 아닌 한 마리의 물고기가 있었다. 양옆에 달린 동그란 두 눈은 데굴데굴 굴러만 갈 것 같았고, 회색빛 비늘이 얼굴에 가득했다. 날카롭게 빠져나온 이빨들이 커다란 입에 조밀하게 나 있었다.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 앞으로 섰다. 눈을 감았다 호흡을 깊게 가다듬은 후에 숨을 뱉었다. 그다음 눈을 뜨고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는 고개 숙인 스탠드가 서 있었고, 각종 자격증 시험과 관련된 책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군데군데 비어 있는 책장 사이에는 쓰러져 있는 곰인형이 들어가 있었다. 그 뒤 나는 다시 침대로 고개를 돌렸다.

물고기가 자고 있었다. 두 눈을 부릅뜬 채로. 그 순간 물고기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이불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얀 두 다리가 빠져나왔다. 나는 황급히 침대 아래 벗어 놓은 옷들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다. 시선을 올려보니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찾는 유민의 뒷모습이 보였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 잘룩하게 들어간 허리. 영락없이 유민이었다. 하지만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게 되었다. 물고기는 나를 보며 잘 잤냐고 입을 벌리는데, 그때마다 아가미가 팔려왔다. 나는 아침에 서둘러서 할 일이 있다고 말을 얼버무리며 밖으로 빠져나갔다.

유민의 집에서 뛰쳐나온 나는 사진첩을 뒤적였다. 그러나 유민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나는 유민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주황빛 조명으로 물든 벚꽃 나무 아래에서도,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던 벽화 마을에서도, 석양이 저물던 만 아래에서도, 사진 속 내 옆에는 물고기가 서 있었다. 사진첩을 던지려 할 때 문자가 왔다. 유민이가 보낸, 저녁에 같이 보자는 내용이었다.

지하철 안에서 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친구들과 나란히 앉아 재잘재잘 떠들고 있는 학생들.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직장인들. 손에 든 핸드폰을 만지느라 정신없는 이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출구로 나가 유민과 만나기로 한 은행 앞에서 서 있었다. 얼마 뒤 저 멀리서 유민이 오는 게 보였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유민의 곁을 지나갔다. 사람만한 물고기가 거리를 활보하는데 그들은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걸까.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뜨지만, 여전히 거리에는 물고기가 보였다. 나 혼자 동떨어진 세계에 떨어진 듯했다. 유민은 나를 보더니 빨리 오라며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손가락이 없는 지느러미의 형태였다. 내게 다가온 유민은 나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유민의 손은 생선처럼 미끄러웠다. 나는 날씨가 더워서 땀이 난다는 핑계를 대며 잡은 손을 억지로 풀었다. 잠시 멈춰서던 유민은 지느러미를 다시 주머니 속에 넣었는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유민이 토라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유민에게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물었다. 그러자 유민은 지느러미로 핏집을 가리켰다. 가게 앞에 놓인 수족관 안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미안, 나 식사는 조금 이따가 하고 싶어. 대신 커피나마실까?”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 우리는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그런데 도저히 커피 향이 코끝에 느껴지지 않았다. 유민에게 나는 비린내는 커피 향을 뒤덮어버렸다. 내 어깨에 기대며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비린내는 내 코끝에 풍겨왔다. 유민은 나를 보며 손가락이 없는 지느러미로 내 머리를 만져주었다. 파스함이 전해지던 손이었지만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이번 주에는 어디 놀러 갈까? 근데 오빠 내 말 듣고 있는 거 맞지?”

“아, 물론이지.”

아가미가 들쭉거릴 때마다 흘러나오는 거품에 정신이 팔려 집중하기 어려웠다.

가로등만이 흐릿하게 비추는 거리. 저녁이면 덥지도 않은데 손을 끝까지 안 잡아 준다고 옆에선 계속해서 핀잔을 두었다. 어느새 유민의 집 앞에 도착했고, 나는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자 유민은 집에 잘 들어가려면서 내 입에 주둥아리를 박았다. 그 순간 비린내가 코끝까지 올라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담벼락 아래에서 내가 오늘 점심에 오징어무침을 해먹었음을 기억해냈다.

“MRI 결과를 보았는데 이상한 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의사는 모니터를 내게 보여주었다. 내 뇌를 찍은 MRI 사진이 띄워져 있었다.

“일시적으로 사람이 물고기기도 보인다고요?”

“네. 미국의 로버트라는 환자는 사람들이 괴물로 보인다고 고백하더군요. 머리에선 핏줄이 달려 있고, 흉측하게 생긴 생물체가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했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MRI에서는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죠. 그러나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해결책이 무엇인가요?”

나는 앉아 있던 의자를 박치고 일어섰다. 그러자 의사는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진정하라고 말했다.

“환자분 상태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니 흥분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로버트는 더 이상 사람들을 괴물로 보지 않아요. 로버트는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 인적이 드문 플로리다 교외 지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양하게 돼요. 그렇게 사람들을 한동안 보지 않게 되자 어느새 사람들을 똑바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니, 어떻게 요양할 시간을 낼 수가 있나요?”

나는 다시 한번 의자를 박차고 일어설 뻔했다.

“아, 제 말은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인식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은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MRI를 이용해도 알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죠.”

나는 모니터의 화면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로버트처럼 인식을 담당하는 부분을 쉬게 한다면 다시 제 기능을 할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자친구분과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빌딩으로 뒤덮여 있는 도심 속. 그 사이를 행인들이 지나간다. 서로 마주치며 걸을 때면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만 같다. 나는 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그러다 발걸음이 멈춰졌고, 나는 쇼윈도 앞에서 있었다. 그 뒤에는 마케팅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각자 크기와 입은 옷들은 달랐으나 하나 같이 둥글둥글한 계란 형태의 얼굴이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유민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나는 유민을 따라 두둥실 올라가 폭신한 구름 위에 앉았다. 아기자기한 천사들이 그 위에서 부르는 노래. 안락함에 젖어 서서히 잠이 들 때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갑자기 유민이 이상하다고. 어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자리에서 허둥지둥 일어나 나는 유민을 찾아갔다. 저 멀리 유민은 쓰러져 있었다. 유민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하게 유민을 일으키려 애썼다. 유민의 얼굴을 들어 올릴 때 물고기가 보였다. 나는 잠에서 깬다. 셔츠는 땀에 흥건히 젖어 있었다. 나는 셔츠를 벗고 물을 마셨다. 오늘과 다음날은 내일이 반복될 것 같았다. 핸드폰을 열어 유민에게 당분간 바빠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다.

인스턴트 라면 컵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주위에 과자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있었다.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 같은 쓰레기 봉지들이 집 입구에 너부러져 있었다. 반지하 방이라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방 안은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었다. 그때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유민에게 온 전화였다. 받고 싶지가 않았다. 하지만 벨 소리는 그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울렸다. 결국 나는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내가 썩어 사진 봐. 지금 당장.”

사진은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유민과 만나지 않았던 1달 동안 내가 유민에게 보냈던 문자 내용이였다.

8월 1일

“뒤편?”

“나 지금 집. 너무 피곤해 조금 이따가 연락 줄게.”

8월 8일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갈래? 나 포인트 다 모아서 공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제 제출이 내일이라서 어려울 것 같아.”

8월 29일

“나 오랜만에 스테디 일찍 끝났어.”

“미안 나 아직 공부할 게 남아 있어서.”

“봤어?”

유민이 내게 물었다.

“응.”

“그럼 역 앞으로 당장 와.”

“오늘은 아직 할 게 있어서.”

한숨 소리가 수화음 너머로 들려온다.

“할 이야기가 있어.”

유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당장 나갈게. 기다려. 그리고...”

“그리고 뭐.”

“아니야. 지금 갈게.”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아니 말을 꺼내기조차 쉽지 않았다. 수많은 이들 중에서 어떻게 단 한 명, 자기 자신이 물고기로 보인다는 말은 터무니없게 들리지 않을까. 그럴듯한 거짓말이라면 고개를 끄덕여주는 수공이라도 해줄 텐데.

“유민아 어디야? 나는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

“나 4번 출구 앞이야. 출구로 나오면 돼.”

나는 4번 출구 앞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조금씩 지상을 향해 올라가면서 내 눈에는 사람들이 신은 수많은 신발이 보였다. 그중 빨간 하이힐이 시선에 잡혔다.

나는 유민에게 힐을 신지 말라고 했다. 유민의 부르튼 다리를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유민은 나를 만날 때마다 힐을 신고 왔다. 그래야 나와 눈을 마주보기 쉽다고, 그래야만 나와 입을 맞추기 쉽다며 유민은 힐을 포기하지 않았다.

에스컬레이터가 점점 올라가면서 빨간 하이힐을 신은, 검은 스타킹을 신은 두 다리가 보였다. 그 뒤에 하얀 원피스가, 그리고 유민의 쇄골과 목이 드러난 부분에 도달했을 때, 핸드폰을 들고 있는 한 마리의 물고기가 보였다. 분홍색 토끼 귀가 푹하고 튀어나와 있는 핸드폰 케이스. 내가 귀여운 유민이랑 잘 어울린다고 말했던 제품이였다.

액정이 깨진 내 핸드폰은 에스컬레이터 사이에 걸려서 덜그럭 소리를 냈다. 내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빨리 지나가라고 말했다. 주변의 눈들은 나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은 바로 앞에 있는 동그란 눈에만 가 있었다. 유민 얼굴 옆에 붙어 있는 이질적인 눈.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은 채 나를 멍멍뚱뚱 바라보기만 했다. 유민은 어떤 표정 변화 없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도로를 지나가는 차들의 굉음. 가게에서 시끄럽게 들리는 음악 소리. 전광판에서 나오는 적 녹색의 현란한 불빛들. 내 머릿속에 생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주먹을 꼭 쥐지 않으면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을 것만 같다. 유민은 내게 무언가 말하려 입을 벌렸다. 아가미가 찢어질 듯이 벌어졌다. 유민이 내게 지느러미를 뻗자 시야가 좁아지더니 이내 감 캄해졌다.

눈을 뜨자 하얀 벽지로 도배된 천장이 보였다. 나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내 왼쪽 손목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베이시색 커튼이 보였다. 내 옆에는 유민이 고개를 숙인 채 자고 있었다. 손을 뻗어 유민의 머리 카락에 손을 댔다. 예전의 파스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잠에서 깬지 유민이 나를 보았다. 그러자 소독용 알코올 냄새가 강하게 올라왔다.

“괜찮아?”

뼈끔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내 이빨 줄 알았어. 그렇게 바쁘니깐 쓰러지는 거지. 오빠는 나를 봐줄 여유가 하나도 없어?”

지금 슬픈 표정을 하고 있을까?

“왜 그래, 그렇게 나를 뻔히 바라보고.”

왼손으로 그녀를 잡아내 품에 안았다.

“뒤편, 갑자기. 그리고 잠을 거면 제대로 잡아봐. 이 거 더듬는 것 같아.”

미끈거려서 잡기가 어려웠다.

“잠시만 그대로 있어 줘.”

눈을 감고 난 유민의 얼굴을 향해 조심히 손을 천천히 댔다. 유민의 코가 있던 자리를 어루만져 본다. 유민의 도톰한 입술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유민의 부드러운 머릿결 사이로 손을 넣어본다. 앞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했던 유민의 체온을 그리워해 봤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유민이 느껴지지 않았다.

“왜 이러는 거야. 뭐야, 갑자기 왜 우는 거야?”

“못하겠어. 미안해. 사실 나 유민이 네가 물고기로 보여.”

“물고기?”

“응. 믿기 어렵겠지만 네 얼굴은 지금 회색빛 비늘로 덮여져 있고, 초점 없는 눈동자만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

어떠한 대답도 들리지 않는다.

“너를 안을 때마다, 손을 잡을 때마다 들었던 감촉들이 전부 이질적으로 느껴져. 원래의 내가 아닌 것 마냥. 마치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마리의 물고기로 여겨진다고. 그런데.”

“그런데?”

“웃긴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야. 모두 멀쩡하게 보이는데, 오직 너만이 이런 모습으로 변해 버린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나 더 이상 널 듣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도 잘 알잖아. 이제는 더 이상은...”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카트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할 말 다 했어?”
 지느러미를 뻗지만 구겨졌던 이불 시트는 쉽게 퍼지질 않았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나만 물으게. 오빠는 지금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지금?”
 “나는 오빠가 했던 말을 믿어. 오빠가 형편없는 거짓 말을 할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어? 왜 그 사실을 숨기고 나를 피한 거야?”
 “아니, 그건...”
 “왜 나는 알면 안 되는 거야? 끄떡 없었던 것이라면 정말 해결될 거로 생각한 거야? 그럼 나는 뭐야?”
 “사실을 알면 충격 받을까 봐.”
 한숨 소리가 들린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그 상황도 이해 못 해서 매일 침대에 누울 때마다 핸드폰만 쥐면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왜 마음이 돌아섰는지 친구들에게 걱정을 호소하면서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었는데.”
 “그게...”
 “됐어. 나이만 가볼게. 이제 오빠가 원하던 거니까.”
 유민은 간호사와 부딪힐 뻔했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밖으로 나갔다. 유민은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술자리가 시작되면 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끊임없이 술을 마시게 된다. 일렁이는 붉은 빛 조명 아래 경쾌하게 유리잔이 울리는 소리가 반복된다. 그 밖으로 나가면 출렁거리는 빌딩들 위로 내온사인들이 흔들리며 나를 반긴다. 마치 춤을 추듯이, 알랑거리기 시작하면 밖의 풍경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기보다는 내게 점점 다가오는 것 같다. 서로 간에 존재했던 경계들이 흐릿해지면 나는 도심의 사이로 흘러 들어간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속의 말들이 빈틈을 비집고 빠져나온다.
 “나 유민이랑 헤어졌다.”
 “왜?”
 친구들이 물었다.
 “유민이가 물고기로 보이기 시작했거든. 더 이상 사랑으로 보이질 않아.”
 폭소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내가 진실을 말할 수록 친구들은 이를 거짓으로 여겼다. 나를 만기보다 나를 비웃기 바빴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나는 코가 길어진 피노키오가 되었다.
 “나 간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갈 때 친구 한 놈이 내 팔을 붙잡는다.
 “너 병원에서 유민이를 왜 그냥 보냈어?”
 “내가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니 보냈지.”
 나는 친구의 팔을 뿌리쳤다.
 “너 유민이한테 사과는 했어?”
 “무슨 사과를 해.”
 “넌 유민이 마음을 난도질해 놓고서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잖아. 너만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듯이 행동을 했는데 유민이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겠어.”
 머리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나한테 혼수 두르고 하지 마. 이젠 내가 결정한 거고 내가 감당할 일이니까.”
 “그럼 넌 유민이랑 헤어지는 것에 대해 미련이 없어?”
 목 아래에서 올라오는 술기운 때문인지 대답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응. 후회 없어.”

“진심으로 하는 소리아?”
 어지럽다. 내 앞에 서 있는 친구가 여럿으로 보인다. 시야가 흐릿해진다. 몽롱해지는 머릿속에서는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물고기가 빠끔거리는 소리였다.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해본다. 신호음이 울린다. 그리고 이내 사라진다. 다시 걸어본다. 신호음이 울리고 다시 사라졌다. 지쳐 그만두려 하자 배경화면에 저장된 사진이 보였다.
 “왜 하필 수많은 사람 중에서 물고기로 보이는 게 왜 유민이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말이야?”
 순간 두 눈앞에서 있는 내 친구의 모습이 시야 속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나를 떠나가는 거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손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나의 두 눈은 서서히 감기기 시작했고, 도로 위에서 누워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정신을 차리니 나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내 방이 아니었다. 뒤를 돌아 주변을 살펴보았다. 책상 위에 있는 고개 숙인 스탠드, 어지럽게 놓여 있는 각종 자격증과 관련된 책들, 책장 사이에는 쓰러져 있는 곰 인형까지. 유민의 방이었다. 침대 위 이불이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유민이 나왔다. 비록 회색 빛 비늘로 뒤덮인 물고기의 모습이었지만.
 “오빠 일어났네?”
 아가미가 펄럭이며 그 사이로 거품이 나왔다. 나는 쓰러지듯 유민에게 다가서 유민을 안았다.
 “죽 끓여 놔오니까 얼른 먹어.”
 싱크대 옆에는 남은 재료들이 도마 위에 올려져 있었다.
 “오빠 그 친구한테 고맙다고 꼭 전해. 오빠가 쓰러졌으니 빨리 오라고 얼마나 전화를 걸었는지. 전화 받자마자 나 달려 나갔어. 그것도 슬리퍼 차림으로 말이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조용히 하고, 그냥 거기에 누워 있거나 해. 의사 말로는 서로 안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복에 좋다고 했다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야지.”
 할 말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물고기로 보인다는 거야. 내 몸이 지느러미가 달린 거야? 끄떡해라.”
 유민은 내 앞에 지느러미를 펼쳐서 보고 있었다. 괜히 입꼬리가 올라간다.
 “오빠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물고기의 깜빡이지 않는 두 눈이 보였다.
 “응?”
 “방법을 찾아야지. 난 계속 물고기로 보이고 싶지 않다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나는 핸드폰에 남아 있는 사진들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 함께 했던 날들. 추억으로 남아 있는 날들 다시 되돌아보자.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그 속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유민은 물끄러미 화면을 쳐다본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우선 무엇이든 해봐야지.”
 아가미가 춤추듯이 펄럭였다.

파란 건물에 그려진 토끼들이 인사를 한다. 고개를 내민 강아지 그림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그 위를 덩굴들이 벽들을 타고 길게 늘어져 있었다.
 “나어때? 사진 잘 나왔어?”
 하얀 두 날개가 펼쳐진 천사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어 주었다.
 “음... 날지 같아.”
 왼쪽 볼을 만지며 계단을 내려간다. 얼얼함이 남아있다. 손가락 자국 대신 지느러미 자국이 선하게 보였다.
 “어? 나 유민이 너 밟고 간 것 같은데. 이것 봐.”
 다 내려온 계단을 살펴보자 커다란 잉어가 그려져 있었다.
 “옛날에 입었던 옷들을 찾아보니깐 향수도 같이 나오더라고, 그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라벤더 향 사줬던 것은 기억나지?”
 물고기가 한 바퀴 돌아 옷이 나풀거리며 흔들린다. 그러면서 코끝에 향이 전해진다.
 “어때?”
 “내가 알기론 레몬즙은 비린내를 줄어준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레몬 향 향수를 뿌리는 건 어떨까?”
 이번엔 뽕대신 등에 물고기의 흔적이 남았다.

강가 너머 부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린다. 발자국이 찍힌 산길을 따라 능선을 올랐다. 숨이 차기 시작함을 느꼈다. 뒤를 힐끗 돌아보니, 물고기는 고개를 숙인 채 터덜터덜 걷고 있었다.
 “힘들지? 조금만 참으면 정상이야.”
 “응.”
 매가리가 없는 목소리였다.
 “우선 저기서 한번 쉬자. 자, 내 손 잡아.”
 지느러미를 잡아보려 했다. 하지만 미끄러운 나머지 내 손에서 지푸란 빠져나왔다.
 “오빠 손도 제대로 못 잡는 거야?”
 “손가락이 있어야 잡기 쉽지 않을까.”
 하마터면 만의 정상에 가보지 못할 뻔했다.

쏟아지는 조명 아래 주홍빛이 문은 벚꽃들. 바람이 불자 꽃의 그림자는 부끄러운 듯 살랑거린다. 나무에 가리지 않아 탁 트인 정자 안에서 건물들이 뿜어내는 불빛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발걸음이 들린다. 힐끗 옆을 바라본다. 길게 늘어진 물고기 모양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오빠 여기 올라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유민은 헉헉거리며 먼저 올라온 나의 옆에 섰다. 고개를 숙이니 유민의 다리 그림자가 보였다. 고개를 돌리니 숨을 팔딱거리려는 물고기가 서 있었다.
 “여기 야경은 언제 봐도 예쁜 것 같아.”
 동그란 눈을 한 채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 물고기를 뒤로 한 채 나는 근처에 있는 벤치로 걸어갔다.
 “이쪽으로 와서 잠깐 앉자.”
 벤치에 물고기와 같이 앉았다. 내 어깨에 얼굴을 기댔는데 정수리에서는 비린내가 났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헛웃음이 나왔다.
 “아직도 내가 물고기로 보이는 거지.”
 “응.”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게 유일한 방법인 걸까? 깊은 한숨을 내린다.
 “벌써 9월이네. 가을이 다가오는구나.”
 야경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뉘 놓고 쳐다보고 있다. 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말이 얼떨결에 나왔다.
 “코스모스.”
 둘 다 동시에 대답했다.

“기다려 봐.”
 사진 목록들을 찾아본다. 코스모스가 산개했던 9월 17일. 순백의 하얀 원피스. 아직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선선해서 서로 짝을 맞추어 신었던 샌들 네 짝.
 “오빠 이거 우리 처음 사귄 날에 갔던 곳 맞지?”
 “맞아. 유민이 네가 입은 원피스가 풀에 젖어서 초록색으로 변했다고 놀렸잖아.”
 “이때 오빠가 늦어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알고야 말고. 그리고 양산. 내가 너 살 타지 말라고 사줬잖아. 네가 양산을 펼칠 때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예뻐는데.”
 순간 유민의 웃는 모습을 떠올렸다.
 “히히. 그렇게 말해주다니. 고마워. 사실 그때 양산 필요하지는 않았는데...”
 잔잔한 웃음기가 스며든 미소 보고 싶었다.
 “그럼 17일 오후 6시에 보는 거로 하자. 시간 괜찮지?”
 “나는 문제없어.”
 “그래. 그럼 그때 보는 거로 하자.”

9월 17일. 해는 서서히 구름 뒤로, 산 아래로 숨고 있었다. 선선히 부는 바람 아래 코스모스가 살랑거린다. 하양, 분홍, 자주색들이 섞여 흔들리는 꽃밭 한가운데에 유민이 서 있었다. 순백의 원피스를 입고 레이스가 달린 흰색의 양산을 들고 있었다. 나는 일렁거리는 꽃들 사이로 들어갔다.
 “날 또 기다리게 했네.”
 청아한 목소리가 들렸다. 유민의 얼굴은 부끄러운 듯이 양산 뒤에 숨어 가려져 있었다.
 라벤더 향이 산개하는 코스모스와 진내하는 꽃향기 사이에서 풍겨왔다. 나를 바라보면 웃어주던 유민의 미소.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향해 짓고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풀이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야?”
 유민과 내가 신은 샌들이 보였다. 나는 유민을 쳐다볼 자신이 없었다.
 “미안해. 나는...”
 “사과는 그때 했던 거로 충분해. 지나간 일은 더 이상 꺼내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나는 겁쟁이었어. 그동안 유민이 너에게 주었던 상처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부끄러워. 유민이 내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나는 한마디도 못할 텐데. 그런데 유민이 너는 끝까지 내 곁에 있어 주려고 했잖아. 그래서 고마워.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유민은 짧게 웃더니 내 왼편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꽃밭에 쭈그러 앉았다. 유민의 손에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는 코스모스 한 송이가 쥐어져 있었다.
 “기억나? 우리 처음에 손을 잡았던 날. 옆에서 있는 오빠가 내 손을 잡지 못해서 잡을라 말락 하면서 손가락만 툭툭 쳐댔던 거. 그러다 코스모스 한 송이를 쥐어서 한번 나한테 쥐어 보라고 했는데 내 손까지 같이 잡았잖아.”
 유민이 나를 향해 꽃을 쥐고 있는 손을 내민다.
 “뉘해, 얼른 내밀지 말고.”
 유민이 들고 있던 양산을 내려놓았다. 눈동자를 바라본다. 유민이 보였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유민. 눈가에는 나와 마찬가지로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고 있는 석양 저 너머로 바람이 불어 꽃잎들이 팔랑거린다. 그리고 포개진 두 손 사이로 코스모스 한 송이가 보였다.

| | |
|-----|----|
| 소설 | 부문 |
| 심사평 | |



김인경 초빙교수 (숭실대학교 배덕교양대학)



정원채 학술연구원 (사고와표현교육과정)

이번 한성문학상 소설 부문 심사에 오른 7편 작품들의 경향 중 하나는 연애 스토리가 많다는 것이다. 청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또 하나는 환상적이고 스텔라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으로, 영상미디어적 상상력에 젊은 세대가 익숙한

것과 관련이 있다. 최종적으로 본심에 오른 작품은 조상현(사회과학 1) 학생의 <유랑극단>과 최병찬(부동산 3) 학생의 <그대와 맞잡은 두 손>이다. <유랑극단>은 소설가 ‘빈’이 ‘엘자데’라는 유랑극단원을 만나는 이국적이고 기이한 이야기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솜씨가 돋보이나, 빈이 엘자데에게 주는 소설이 수기라는 설정이 작위적이고, 두 인물들의 내적 문제가 모호하며, 인물들이 겪는 과정이 단계적이지 않다. <그대와 맞잡은 두 손>은 주인공의 눈에 여자인 구인 ‘유민’이 물고기로 보이는 상황을 다룬 소설이다. 기발하고 유쾌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지만, 애인의 모습이 물고기로 보이는 설정에 대한 상징적 함의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후반으로 갈수록 급한 전개로 사건과 장면의 밀도가 떨어진다.

고심 끝에 <그대와 맞잡은 두 손>을 가작으로 선정했다. 상상력의 참신함과 문학적 가능성, 청춘의 이야기를 담은 진솔함 쪽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다. 투고한 모든 학생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더욱 소설 쓰기에 정진하기를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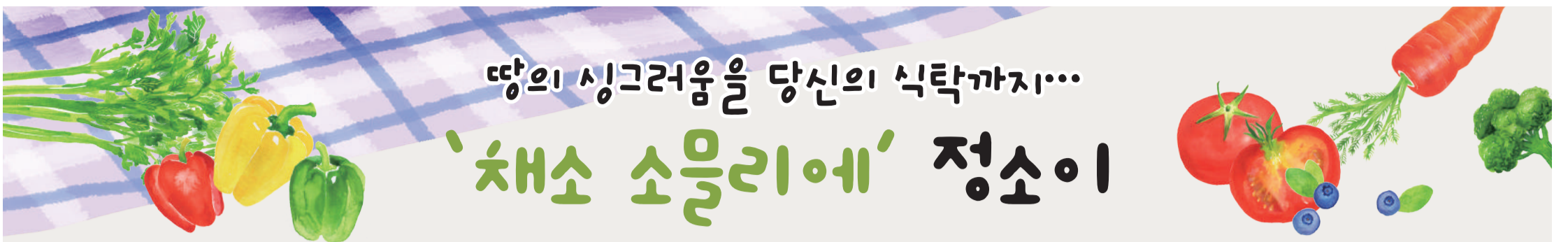
| | |
|------|----|
| 소설 | 부문 |
| 수상소감 | |



최병찬 (부동산 3)

부끄럽습니다. 제 소설이 가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들었던 생각입니다. 제 소설은 지금 읽어보아도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이런 미약한 글로 상을 받아도

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은 기쁨보다는 학교 문학상 위상에 흠이 될까 걱정이 더 큼니다. 그렇기에 부끄러운 감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소설이 부족했기에 당선인 아닌 가작을 받았다고 여깁니다. 가작을 받은 것도 제 실력이 좋았기보다 저한테 운이 따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기에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저 스스로 부끄러운 감정이 들지 않도록, 더 좋은 소설을 쓰도록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 소설을 보았던 분들과 앞으로 보게 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제 소설을 다시 보게 될 날이 온다면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의 싱그러움을 당신의 식탁까지... '채소 소믈리에' 정소이

매 끼니 빠지지 않고 식탁 위에 자리하는 온갖 채소들. 주로 요리에 향이나 식감을 더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재료와 결합해 새로운 풍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인다. 인스턴트 식품에서도 채소는 빠지는 일이 없다. 하다못해 튀김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채소를 사용하곤 하지 않더라도 밀을 주원료로 한 튀김가루는 사용하지 않더라.

이처럼 우리 식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는 식재료가 채소건만, 이 채소가 어떻게 재배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지 알기는 어렵다.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이러한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쉽고 편안하게 좋은 채소를 고를 수 있을 터. 더불어 그 채소를 활용한 요리법까지 알려준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이같은 활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채소 소믈리에' 정소이(23) 씨를 만나봤다.

'와인' 말고 '채소' 소믈리에

와인 소믈리에라는 말을 들어봤어도 채소 소믈리에라는 생소한 직업이 아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 '채소 소믈리에'라고 대답하면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채소 감별사나, '채식하는 사람이나' 하고요. 쉽게 말해서 채소 소믈리에란 채소가

흙에서부터 밭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마트나 시장에서 채소를 구입할 때, 포장재에 원산지나 성분 외 다른 정보는 마땅히 표기돼 있지 않다. 간혹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채소의 포장재에 생산자까지 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채소가 어떤 땅에서 어떤 비료를 흡수해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지는 전혀 알 도리가 없다. 채소 소믈리에란 이러한 정보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사실 저 혼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채소를 재배하는 과정을 산지에 가서 살펴봐야 하나가요. 그래서 채소 소믈리에 협회에 등록된 사람과 함께 산지 교류를 다녀요. 채소가 어떤 토양에서 자라고 있는지, 농약은 어떤 제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확인하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채소가 납품되는 공판장, 도·소매시장도 직접 확인해요. 그렇다 보니 신경 써야 할 일도, 공부해야 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떡잎부터 낳았었던 그녀의 어린 시절

일본에서는 4만 명이 넘는 채소 소믈리에가 활동하고 있는 데 비해, 현재 추산되는 국내 채소 소믈리에 종사자 규모는

800여 명에 불과하다. 정 씨가 이렇게 생소한 직업을 선택한 것은 무슨 연유에서일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어렸을 때부터 안가본 산이 없어요. 그렇게 온갖 산을 다니다 보니 야생화, 산나물 등 채소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나 둘 공부하면서 재미가 붙었어요. 게다가 외할머니께서 농사를 지으셔서 작물을 기르는 법도 아껴 너무 배웠고요."

그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푸드 스타일리스트(요리 연구가)'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고, 중학교에 진학하고부터 꿈을 향해 쉬 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방학마다 자격증을 따기 시작한 것이다. 한·중·일·양식, 복어 등의 요리 자격증은 물론이고 플로리스트 자격증까지... 현재 그녀가 지니고 있는 자격증만 13개에 달한다.

"부모님의 영향도 적지 않았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서 '4도3농' 생활을 하셨어요. 4일은 분가가 위치한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시고, 3일은 대구와 인접한 경북 고령군에서 농사를 지으셨다는 의미예요. 이런 가정환경은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꿈꾸던 제게 안정감이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지금까지도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고 계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그녀는

꿈을 향한 땀겨울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대학교에서 푸드 코디네이터를 전공하며 더욱 심층적으로 공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학교 전공 실습 시간에故 김은경 요리연구가를 만나게 됐다.

"스무 살이 되고 대학 진학을 위해 상경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자연을 뛰어다니며 자랐는데, 갑자기 도심에서 생활하러니 여간 답답한 게 아니더라고요. 마땅한 연고도 없었고, 무엇보다 동네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처럼 정이 넘쳐나는 느낌을 서울에서는 받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 김은경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선생님께서 채소 소믈리에를 직업으로 추천해주셨어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녀는 현재 채소 소믈리에 협회에서 채소 관련 강의를 맡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고.

"지금은 괜찮은데 강의를 처음 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채소는 데칠 때 소금이나 식초 중 어느 것을 활용해도 상관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한된 강의 시간 때문에 둘 중 한 가지만 알려드렸더니 의아해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수강생 중에는 저보다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이 종종 계시다 보니 강의를 진행하면서 곤란할 때도 있었죠."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했던가. 그녀의 일이 항상 어렵고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채소에 대한 그들의 인식 자체를 바꿔주고 싶더라고요."

정 씨는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채소에 거부감을 갖는지, 어떤 요리법을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의 식습관을 관찰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춤 요리를 해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누군가의 식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때마다 그녀는 보람을 느낀다.

이외에도 정 씨는 SNS에서 채소 정보와 요리법을 꾸준히 공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채소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채소를 의인화한 그림도 직접 그려 SNS에 게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1인 미디어를 활용해 채소에 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나누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개인이 채소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기는 힘들어요. 인터넷에는 정확한 정보도 잘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안심하고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농장부터 식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완벽한 채소 콘텐츠를 만들어 널리 알리는 게 제 꿈이에요."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정소이 씨가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채소 그림. 정 씨는 채소를 활용한 각종 요리 사진도 SNS에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 또한, 그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365일 제철채소달력'에는 채소에 대한 온갖 정보가 소개되어 있다.

청년정치크루 이동수 대표

"대중과 정치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2017년 6월, 한 청년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제 주변 청년 중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한 명도 없습디다. 지지 필요성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듣기 거슬리고 거북하더라도 청년들이 내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디다. 당신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바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현장에서 '청년정치크루' 이동수 대표(31)가 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2015년 여름부터 7명의 청년과

함께 청년정치크루로 활동 중이다. 청년정치크루는 '청년정책 싱크탱크'를 표방해 결성된 청년단체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해 이를 정당과 정치인들에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보다 훨씬 연배가 있는 정치인들에게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뱉을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뚜렷한 정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정치인들은 자신의 소속 정당에 문제가 있어도 감싸지만 하더라고요. 저는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비판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정당이라도 정치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도와주고요. 이렇게 활동하는 정치단체를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제가 새로운 정치 풍토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진보와 보수를 완전히 양분해서 이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이야기한다. 진영을 떠나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래서일까. 이 대표가 크루 멤버를 모집한 기준도 남달랐다. 그는 크루 멤버를 모집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사람인지,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 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크루에 모인 청년들의 정치적 성향은

제각각이에요. 그래도 청년정책을 직접 만들어 젊은이들을 돕겠다는 신념이 같아 모였지요.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갈등을 겪은 적도 거의 없어요. 단지 의견이 좀 다양할 뿐이에요. 멤버 중에 우리미래당 당원인 친구가 있는데, 진보 정당에 몸담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보수적인 정책에 동의할 때도 많아요."

청년정치크루는 일반적인 청년단체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단체를 '크루'로 부르는 것, 소속원을 '멤버'로 지칭하는 것, 정책 '쇼케이스'를 열고 '프로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 이런 모습은 마치 '아이돌'을 연상시킨다.

"아이돌'하면 왠지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반면에 정치는 그런 느낌과 거리가 멀죠. 문득, '아이돌처럼 정치를 세련되게 꾸며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와 아이돌, 그 두 개를 합쳐서 무언가를 만들면 '나를 이길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정치크루도 정치계의 아이돌이라는 콘셉트를 배경으로 결성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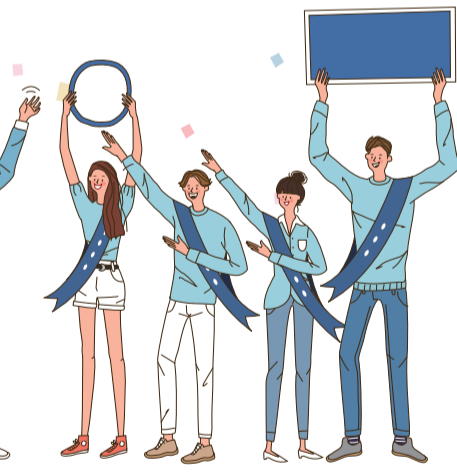
이 대표는 크루 멤버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그중 세간에 잘 알려진 것은 취업준비생들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라는 이유로 서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선 사실이다. 당시, 이 대표는

〈취업준비생 보호법(‘채용절차의공정화예안법’ 개정안)〉을 ‘국회특특(법안 발의부터 의결 과정까지 일반 시민들이 국회의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했다. 이 법은 2016년 정의당 총선 정책과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 경선을 벌인 인회회 전 총남지사의 공약에 반영됐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취업사기 방지법〉 마련을 위해 제안서를 작성해 정책쇼케이스에서 발표했다. 또한, 대학생 기숙사 정책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는 이 같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는 것일까?

"아직까지는 제가 겪은 일이나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탐색하고 있어요. 특히 〈취업준비생 보호법〉은 제 경험이 많이 반영된 사례예요. 제가 기업에서 인턴생활을 할 때 처우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인턴을 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법제화에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청년정치크루의 활동이 각종 매체에 소개되자, 최근에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는 일도 늘고 있다.



"작년에는 승무원 준비생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승무원 채용대행'을 내건 학원가에서 그분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더라고요. 채용 사기에 가까운 이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멤버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했어요."

이처럼 이 대표는 청년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며 그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에게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바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적다는 사실이다. 이 대표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정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지 않아요. 요즘 청년들이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정치 관련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할 생각이에요. 대중과 정치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이요"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사진제공: 이동수

공유와 존중, 그 속에서 '우리'는 나아간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토의하고 머리를 맞댄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우리는 주어진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보다 누군가와 공유한다. 이른바 '집단지성'의 시대다.

집단지성, 그 발자취를 찾아서

집단지성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을 통해 얻게 된 집단적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1910년 미국의 곤충학자 윌리엄 모턴 휠러(William Morton Wheeler)가 개미의 군집 활동을 관찰한 사례에서 출발한다. 그는 연구에서 '개미는 하나의 개체로서는 작고 미미하지만, 공동체로서 협업했을 때 거대한 개미 집을 만드는 등 높은 지능 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개체들이 협업하면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세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된 집단지성은 최근 새로운 지식 구축의 대안이자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집단지성이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활발하게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위키피디아'다. 위키피디아는 전 세계 인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웹 기반의 다언어 백과사전이다. 각 주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지혜를 동원해 내용을 추가해 나가기 때문에 위키피디아에 담긴 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 위키피디아의 참여자에게는 어떠한 물질적 보상도



주어지지 않으므로 전문가가 위키피디아로 작성에 참여하는 일은 적은 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위키피디아 문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조동기(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위키피디아의 신뢰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다수 참여자가 수정을 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류가 개선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가 저술에 참여하는 덕분에 포괄 범위, 현상성, 시의성 등에서 전통적 지식을 압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집단지성은 개별

존재가 지니는 한계나 오류를 극복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동원과 다양한 관점의 결합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창출하도록 한다.

집단의 위험한 오류, 집단사고

반면, 높은 응집성을 가진 집단이거나, 해당 집단의 의사결정 구조가 폐쇄적인 경우에는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이 강한 집단정신을 지니게 된다. 강한 집단정신을 지닌 집단 구성원들은 집단의 화합과 동질성 유지를 위해 의견을 일치시키는 경향을 띄게 되고, 자연히 비판적인 사고를 멈추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을 '집단사고'라 한다.

집단사고에 빠진 구성원들은 지도자가 제시한 문제 해결책을 강력히 지지하며 다른 구성원이 그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외부로부터 정보 유입이나 비판 등을 완전히 차단해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되면 정보를 왜곡하거나, 대안을 충분히 탐색하지 못해 집단에 위기가

닥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집단사고의 대표적인 예로는 1986년에 발생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사고'를 들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우주왕복선인 '챌린저호'가 발사한 지 73초 만에 폭발해, 그 안에 타고 있던 대원 7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사고 전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집단사고에 해당하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났다. 챌린저호의 로켓 추진 장치 및 우주선 제작사의 기술자들은 로켓 발사 당일, 날씨가 추울 것이라는 일기 예보를 확인하고 우주선 발사 날짜를

연기할 것을 건의했다. 로켓이 폭발할 가능성이 예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제작사 간부와 NASA 관리자들은 이를 묵살한 채 예정대로 로켓을 발사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자체 검열', 기술자들이 퇴장한 뒤 고위 간부들로 구성된 회의에서 나타난 '만장일치의 착각' 등 집단사고로 인해 무의미한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이다.

존중, 집단지성의 첫걸음

그렇다면 우리가 집단사고에 빠지지 않고 집단지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집단지성은 이질적인 사고가 활발하게 공유되는 조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발현된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집단지성의 발현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소수자의 관점도 존중하는 문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참여자들이 편리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즉, 집단지성의 효과적인 발현은 개체의 다양성과 독립성의 보장에 달려있는 것이다.

집단의 의사결정 분권화도 또 하나의 발현 요건이다. 결정의 주체가 한 사람뿐이라면, 다른 참여자들이 의견 제시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추구하는 것, 수평적인 의사결정 문화를 만드는 것이 집단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첫걸음이다.

장선아 기자

sunao913@hansung.ac.kr



4개 기본단위는 왜 새롭게 정의됐나?

지난 11월 16일 제26차 국제도량형총회(이하 CGPM)에서 ▲킬로그램(kg) ▲몰(mol, 입자의 개수를 세는 단위) ▲암페어(A,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 ▲켈빈(K, 절대적인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이 새로 정의됐다. 이번 회의로 플랑크 상수(h), 아보가드로 상수(N_A) 등 물리 상수가 네 단위의 새 기준으로 정해졌다.

앞서 나온 네 단위는 국제기본단위(이하 SI)에 속하며, 이는 전 세계에서 법정단위로 채택하고 있다. SI의 역사는 18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799년 프랑스는 '미터법'을 새 도량형으로 공포했다. 이때, 1미터(m)는 '북극에서 적도까지 거리의 1000만분의 1'을 뜻한다.

이후 1875년 미국, 독일 등 17개국에 의해 미터법을 국제단위로 하는 미터협약이 체결됐고, 협약으로 결성된 CGPM의 1차 회의(1889년)에서 금속 합금으로 제작된 1kg 무게추(국제킬로그램원기, 이하 IPK)와 1m 자(국제미터원기, 이하 IPM)가 킬로그램과 미터의 표준으로 채택됐다. 이후 1954년까지 초(s), 암페어, 켈빈, 칸델라(cd, 빛의 세기를 재는 단위)가 CGPM의 표준단위로 편입됐고, 1960년 6개 단위가 SI로 지정됐다. 그 후 1971년 '몰'이 마지막으로 합류하면서 SI의 개수는 7개가 됐다.

하지만 당시 SI는 단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다. 외부 환경에 의해 기준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기 때문이다. 시간 단위의 인 초는 1960년에 1900년의 태양년(지구가 궤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태양년이 100년에 0.5초 쪼로 짧아지면서 기준이 일정하지 않게 됐다. 칸델라는 기존에 백금의 녹는점(1,768°C)에서 형성되는 흑체(전자기파를 흡수하는 물체)로부터 나오는 광선의 밝기로 정의됐지만, 1,768°C는 실험실에서 구현하기 힘들어 더 현실적인 정의가 필요했다. 미터의 경우, 금속으로 제작한 IPM의 길이가 온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과학의 발달로 분자의 운동 주기, 광속 등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자, SI는 더욱 정확한 개념을 활용해 재정의되기 시작했다. 초는 세슘-133 원자가 위치를 옮길 때 나오는 감마선의 주기(한 번 갔다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를 기준으로 수정됐다. 칸델라는 1979년 초록색 가시광선(이하 단색광 시감효능)의 빛 세기를 기준으로 재정립됐다. 또한, 미터의 기준은 빛의 속도로 변경됐다. 감마선 주기·단색광 시감효능·광속 등은 어떤 조건에서도 수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써 SI는 '불변의 단위'에 한 걸음 다가갔다.

드디어 완성된 퍼즐

반면, '불변의 단위'라는 퍼즐에는 미처 맞추지 못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킬로그램, 몰, 암페어, 켈빈이 그것이다. 이들의 정의는 그동안 불변과는 거리가 멀었다.

1988년 국제도량형국은 IPK 원본과 각국에서 킬로그램 표준으로 활용하던 IPK 복제본을 비교해 두 표준의 질량이 50μg(마이크로그램) 정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몰은 탄소-12 원소 0.012kg이 가진 분자의 개수를 기준으로 삼아 왔는데, 킬로그램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부터 덩달아 부정확해졌다. 암페어는 기존 정의에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해석에 따라 측정 수치가 달라질 우려가 있었다. 켈빈은 1954년 물(H₂O)의 삼중점(물·수증기·얼음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지점)이 형성되는 온도의 1/273.16이라고 정의됐으나, 이 또한 지역에 따라 삼중점이 일정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 대해 이호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시간표준센터) 책임연구원은 "이는 산소(O)가 동위원소(동일한 원소 내에서 중성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제26차 국제도량형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 자리에서는 킬로그램, 몰, 암페어, 켈빈을 정의할 새 기준으로 각 단위의 성질에 맞는 각각의 물리 상수를 채택했다. 사진제공: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수가 달라 질량이 상이한 원소를 가져 지역마다 몰의 성질이 달라 나타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CGPM 내에서는 물리 상수로 단위를 다시 정의하자는 안건이 제기됐다. 상수는 어디서든 값이 같아 정의의 정확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후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연구진은 플랑크 상수,

아보가드로 상수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상수 측정 결과 그것이 단위 기준으로 활용하기 적합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올해 11월 열린 CGPM에서 단위 기준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윤희승 기자

yooningh@gmail.com

· 삼 학 송 ·

전통은 보전(補填)해야 보존(保存)된다

옛 동네 종로구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한복 착용자에 한해 고궁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경복궁이나 창덕궁, 창경궁 일대를 지나다 보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사진을 찍고 있는 커플이나 외국인 관광객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종로구가 새삼 '한복'의 기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전통한복이 아닌 생활한복이나 퓨전한복 등을 착용한 경우 고궁 무료 관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처음에 고궁에서 한복을 입고 입장하시는 분들께 입장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 건 전통한복을 이야기한 것이지 생활한복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물론 고궁 입장료 몇 천원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무료 입장을 위한 자격 요건에서 한복의 기준을 전통한복으로 축소하면, 이제 막 활성화된 한복의 대중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 제아무리 아름다운 전통한복이라도 대중에게서 외면당하면 무슨 소용일까.

학보사 역시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는 집단이다. 필자는 얼마 전 <동덕여대학보>가 제500호 특집을 맞아 주최한 좌담회 '학보의 위기와 비전'에 분사 편집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좌담회에서 다뤄진 소주제 중 가장 활발히 논의된 부분은 뉴미디어의 출현과 그로 인한 종이신문의 위기에 대한 내용이었다. 어떻게 해야 종이신문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타 학보사 편집장들과 의견을 공유하던 중 어느 편집장의 발언이 뇌리에 박혔다.

그는 "학보사는 인터넷이 상용화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위기의 연속이었다. 어렵다, 힘들다 호소하면서 자그마치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개혁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학보 구독률이 저조한 데에는 독자가 아닌 전통에 얽매어 발전하지 못하는 학보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일침했다.

본사에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학공모전 '한성문학상'이 있다. 이번 호 지면에는 '제33회 한성문학상' 수상작이 실렸다. 특히, 올해에는 유독 소설 부문에

비해 시 부문 응모작이 많았다. 접수 기간 동안 응모작을 정리하던 중 시 원고 몇 편을 기자들과 함께 읽어봤다.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전통적인 이미지의 시가 아니라, SNS에서 주로 유행한 감성 글귀를 시로 둔갑시켜 제출한 것이 상당수였다.

이후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벼운 문학도 문학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도마에 올랐다. 필자는 가벼운 문학도 그 나름의 목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중이 점점 쉽고 간단히 그리고 빨리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도 기존의 틀, 전통에서 벗어나 변혁을 시도해야만 대중에게 읽히고 그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한복도, 학보도, 문학도, 전통적 기반 없이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다만, 그것들의 전통은 보전(보수,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이 아닌 보전(補填,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채움)되어야 비로소 보존(保存, 잘 간수하여 남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강예림 편집국장



미래관과 탐구관 등에 휴대전화 무료 충전기(이하 충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겉보기에도 장기간 방치된 듯한 이 충전기는 스마트폰과 호환되지 않아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다. 이에 대해 학생복지위원회는 "충전기를 처분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충전기 설치 사업 대신 보조배터리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기자수첩

혼자서도 관참을 거란 착각

바쁘게 지내다보면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쉽다. 사례로 소개할 어떤 이도 그랬다. 처음에 그는 이 유 모를 두통을 겪었다. 그는 머리가 깨질 듯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는 대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을 사 먹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두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 불면증과 식욕감퇴 현상까지 생겨났다. 뒤늦게 상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는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진단한 그의 병명은 바로 '우울증'이었다. 의사는 정기적으로 내원해 치료받길 권했지만 그는 치료를 거부했다. '우울증이야 시간 지나면 관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우울증을 직접 치료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우울증은 오히려 공황장애로 변했다. 사실 우울증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내 우울증 환자는 약 64만 명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이 전체 우울증 환자 중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치료를 기피하는 걸까?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울증을 혼자 극복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역학조사에서 우울증 환자 479명에게 "과거에 치료를 안 받은 이유"에 관해 묻자, 응답자의

75.9%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울증은 의지만으로 극복이 어려운 병이다. 우울증은 뇌 내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이 결핍된 경우 발생된다. 따라서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치료해야 한다. 제대로 된 치료만 이루어진다면 우울증 환자 중 70~90%가 완치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병이 그렇듯, 우울증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거나 우울증 확진을 받고도 치료를 미루고 있다면 어서 빨리 내원해 치료를 받아.

이가연 기자

기자수첩

'말'이라는 감옥에 갇힌 우리

요즘 들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행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갑분싸, TMI, 진지충, 선비충, 아싸 등... 통칭 '인싸 용어'라고 불리는 인터넷 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이 결핍된 경우 우발병된다. 따라서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치료해야 한다. 제대로 된 치료만 이루어진다면 우울증 환자 중 70~90%가 완치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병이 그렇듯, 우울증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단어로 지칭하는 대상이 내가 됐을 때 왠지 모를 묘한

짹짹함을 느껴본 적은 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할 때였다. 대화를 하던 중 나도 모르는 새 감상에 젖어 있던 친구가 나를 쳐다보며 "뭐야 진지충이냐? 히히." "진지충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나는 누가 내 입을 틀어막기라도 한 듯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 듯하다. 인터넷에 진지한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신조어와 은어를 사용해 친구들과 소통한다는 점이 재미있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유행어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같은 현상을 보면, 처음에는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을 이 단어가 오히려 자유로운 표현을 막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동안 SNS에서 유행했던 "오늘거린다"라는 말이 나오자 사람들에게 감성이 사라졌고, '실명충'이라는 말이 나오자 자기가 아는 지식을 나누려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글귀처럼 우리는 스스로 만든 단어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이다.

'말'에 있어서 '재미'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각자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경청하는 '소통'과 '대화'에 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신조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말'의 본질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명아 기자

의화정

상상빌리지 준공에 즈음하여

대학시절 수업시간에 들은 교수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건축가, 의사, 변호사 중 어느 직업이 가장 행복할까요?" 질문하시고, 잠시 후 "의사는 아픈 환자를 만나고, 변호사는 주로 심각한(?) 사람을 만나지만, 건축가는 (내 집 지을) 꿈에 부푼 고객을 만나니, 건축가가 제일 행복한 직업입니다"라며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공간을 다루는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은 즐거운 작업입니다.

저는 '을'로서 남의 집(?) 설계를 평생 해왔는데, 상상빌리지 설계를 하면서 '갑'(우리학교 구성원은 모두 '갑')과 '을'을 겸하는 신나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갑'이 되면 하고 싶은 디자인을 마음껏 할 줄 알았습니다. 막상 해 보니 '갑'에게도

'을'에게 없는 또 다른 고통이 있더군요. 예를 들어 '수용인원을 조금 줄이면 공간의 질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기숙사가 부족 한 학교 사정에 맞추어 최대 수용 인원이 되도록 계획해야 했고, 공사비 제약으로 하고 싶은 주요 디자인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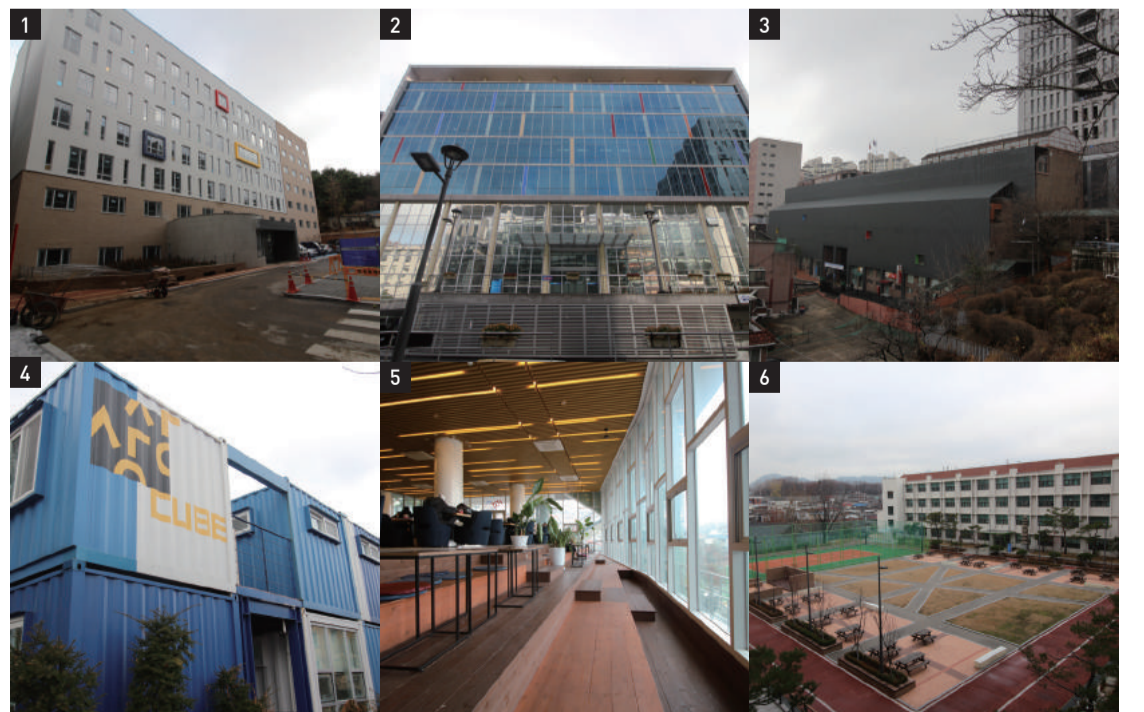
상상빌리지 공간 구성 개념은 호텔입니다. 지상 층은 룩, 지하 층은 편의 시설로 구성했습니다. 옥상은 편하게 앉아서 답사할 수 있는 정원입니다. 지하 1층에는 세탁실, 공동취사장, 매점, 휴게실, 독서실, 집회실, 세미나실 등 편의시설을, 지하 2층에는 라켓볼장, 탁구장, 헬스장, 요가룸 등 운동시설을 배치했습니다.

'사람이 집을 짓고, 집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공간'을 목표로 설계한 저의 바람이 모든 학생에게 조금이라도 전달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건축은 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상상빌리지가 그런 집이면 좋겠습니다. 강의실과 도서관을 오가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이 모여 사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마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내년 봄을 그려 봅니다. 늦은 밤에도 오가는 학생으로 활력 넘치는 캠퍼스, 밤마다 간간히 웃음소리가 들리고, 책상에 켜둔 불빛이 참 너머 어두운 낙산정원을 환히 비추는 기숙사들요. 상상빌리지 주민(?) 모두가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조자연(ICT디자인학부, 건축사) 교수



▲ 조 교수가 직접 설계한 학내 여러 공간의 모습이다. 이외에도 조 교수는 미래관 앞 운동장 '미래마당',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글로벌빌리지', 단과대학 통합센터, 탐구관 앞마당 '파고라' 등을 설계했다. 1. 행복기숙사 '상상빌리지' 2. 창의관 입면 3. 우촌관 입면 4. 창업지원센터 '상상큐브' 5. 연구관 1층 라운지 '상상마루' 6. 상상관 앞 운동장 '상상마당'

낙산에 올라

〈편집자주〉
학생 기고는 〈한성대신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멈칫의 가운데서

점점 가까워오는 졸업의 문턱과 한 끼풀씩 벗겨져 나가는 학생으로의 시간들. 여러 일들이 엉겨 붙어 있던 통에 각자를 떼어내는 데만 해도 얼마치 공을 들였는지 모르겠다. 눈앞에 풍경을 볼 수 있을 때 서야 '아, 벌써 시간이 이만치 왔구나!' 하고 감탄했을 뿐.

달콤해 보였던 희망사항들은 고작 한순간이었다. 만족을 채울라 치면 금세 질려 나가떨어지던 것들. 하릴없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천장을 가득 채우는 것은 바쁘다는 이름 아래 묻어있던 고민들이다.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부터 저 먼 훗날의 얘기까지. 천장이 글씨로 뿜뿜해지면 가만히 몸져누워 있고만 싶다.

자꾸만 멈칫거리게 된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만 커져간다. 나날이 줄어가는 확신. 행동 하나에 자신이 묻어있던 때는 아주 먼 옛날만 같다. 동기와의 짧은 추억 팔이에도 '내가 그랬었나' 싶다. 더 성숙해진 줄 알았던 내가 문득 그 시절보다 작아져있는 것을 발견할 때면 펍 서글퍼질 뿐이다. 선택에 먼저 움찔하게 되고, 늦지 않았다

위로해도 이미 다 써버린 것 같은 시간. 지금의 내겐 멈칫대는 순간들만이 남아있다.

야속하지만 언젠가는 이 날들도 잊혀갈 것이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쓸쓸했는지. 하지만 이 멈칫고 있는 것인지, 의심만 커져간다. 나날이 줄어가는 확신. 행동 하나에 자신이 묻어있던 때는 아주 먼 옛날만 같다. 동기와의 짧은 추억 팔이에도 '내가 그랬었나' 싶다. 더 성숙해진 줄 알았던 내가 문득 그 시절보다 작아져있는 것을 발견할 때면 펍 서글퍼질 뿐이다. 선택에 먼저 움찔하게 되고, 늦지 않았다

최준수(한국어문 3)

동의합니다

국민으로서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할 때, 우리는 '동의합니다'라고 적는다. 현재 국민청원은 개인이 한 나라의 대표에게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소통 창구가 됐다. 그러나 국민청원에는 '옆집 개 짖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 등 국민청원의 본질을 흐리는 질문이 무분별하게 올라온다. 그리고 이런 게시물에도 '동의합니다'라는 댓글이 달려 있다.

이는 진정으로 글쓴이에게 깊이 공감해 '동의'한다고 한 것일까? 그렇다면 동의자는 글쓴이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 상황에 대해

이해해서 동의한 것일까? 나는 그것이 단지 타인의 감정에 동의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청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사실을 기반으로 해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비단,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일의 청원뿐만이 아니다. 2014년에 일어났던 '세 모자 사건', '240번 버스 사건' 그리고 최근 법적 공방 중인 '양예원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까지.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피해자라고 가정된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했고, 사실 여부는 따지지 않은 채 가해자라고 가정된

사람들을 비난하기 바빴다. 이는 한 쪽을 순식간에 벼랑 끝까지 몰고 가기 충분하다. 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사람들을 말이다.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의 전파력과 파급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든지 사실 여부를 떠나 순식간에 확산된다. 이럴 때 일수록 무분별하게 퍼져있는 정보들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은 동의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 충분하다. 당신은 이에 동의하는가?

호소영(영어영문 3)

Shine your light

조금 여유 있게 집을 나섰음에도 친구들과의 약속 시각에 늦은 적이 있다. 타야 할 버스의 대기 시간이 꽤 길어, 막 정류장에 진입하는 버스의 측면에 게시된 비슷한 목적지를 보고 그 버스에 오른 게 회근이었다. 내가 박효신의 'Shine your light' 감상에 젖어있을 때, 버스는 이곳저곳을 한참 돌아 내 목적지와는 동떨어진 곳에 나를 내려놓고 떠났고, 이 때문에 나는 약속 시각에 지각한 것으로 친구들에게 핀잔을 듣고 사과를 해야만 했다.

이는 분명 급히 탄 버스가 당연히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줄 거라는 스스로 만든 환상과, 현 상황을 의심

하지 않고 마약이나 한 듯 그저 흐름에 몸을 실은 환각의 결과였다. 물론 그럴듯한 버스를 탄 경우가 항상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따금 운이 좋게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위와 같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기도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옆 사람이 툭 건드리고 "저기, 버스 잘못 타신 것 같은데요"라고 알려줄 일은 없으므로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 버스 중간에 내리기는 쉽지 않다.

목적지가 분명한 버스를 두고도 착이 늦다는 이유로 그럴듯한 버스를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내 포레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가 있음에도

현실과 타협하여 그럴듯한 진로를 선택하는 것과 공통점이 있다. 아마 어느새 눈앞까지 다가온 '취업'이라는 이유로 마음이 급해서 또는 원하는 업종의 공개 채용에 모두 실패해 다음 기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와 같이 각기 다른 이유로 그리 원하지 않는 곳에 발을 딛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버스와 진로의 차이점이 있다면, 버스를 잘못 타서 약속 시각에 늦으면 당장 친구에게 사과하면 해결되지만 진로를 잘못 선택한 경우는 미래의 '나'에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진호(경영 4)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가치 존중

비혼율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시대가 왔다. 흔히 알고 있듯이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이다.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먹고 살기 힘들었을 시기에도 결혼과 출산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타당한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출산율 변화의 이유는 더 이상 일손이 곧 경쟁력이 아니게 됐고 다양한 피임법의 등장으로 출산에 선택권이 생겨서다.

여성의 지위는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비혼율 상승 원인은 여성이 과거와 달리 남성에게 기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관습화된 가부장적 가정문화(여성 은 집안일, 남성은 경제 활동)를 탈피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나는 이러한 사회현상의 원인은 위의 내용과 더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의 본질을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 현재에는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고, 선택권 없이 가사노동에 시달리던 과거에서 벗어나 선택권이 생겼다. 이 시점에서 결혼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물론 명확한 답은 나도 모른다.

출산 또한 그렇다. 요 근래 뜨거운 화제인 '낙태'를 논하는 사람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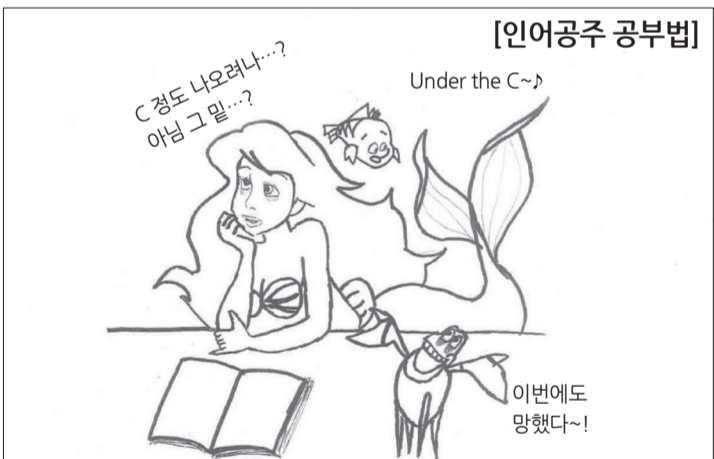
보면 출산의 가치가 얼마나 폄하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단순한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것이 아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다라는 주장 하나로 아이가 생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 과정인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어쩌면 허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고민해야 한다. 모든 인간의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인간(人間)다운 사회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김나현(화학 4)

#낙산세кет_재수강_못_면하는_★★공부법

이가연 기자



페이스북 페이지
@hansungpresscenter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hansungnews>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hansungnews

에브리타임 공식 계정
게시판 > '한성대신문사'

한꽃분 씨에게도 봄이 올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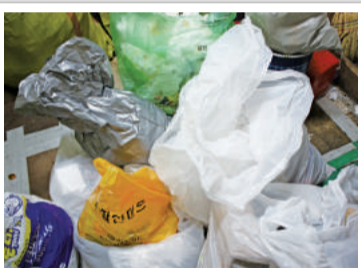
청소노동자의 주요 업무

화장실 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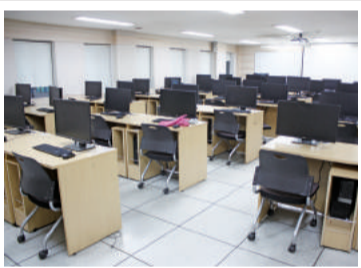
▲한 씨가 맡고 있는 화장실은 총 5개. 그녀가 하루에 담당하는 변기의 수는 약 30개다.

분리수거장의 실정



▲이곳은 분리수거장이다. 한 번 구역을 돌 때마다 사람 몸집 만한 쓰레기 더미가 3~4개씩 나온다. 분리수거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5분. 그녀는 하루 평균 5~6차례 분리수거를 진행한다.

강의실 청소



▲한 씨는 컴퓨터를 하나하나 닦고,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와 바닥을 청소한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9시 전까지 이 작업을 마쳐야 한다.

<편집자주>

학내 곳곳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바쁜 우리의 삶 속엔 기억되지 않는 존재가 있다. 바로 학내 청소 노동자들이다.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얇은 옷 한 장 걸치고 우리학교를 분주하게 청소하는 그들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바빠 움직이는 우리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들의 삶이 문득 궁금해졌다. <한성대신문>이 그들의 삶을 밀착 취재했다.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학내 구성원의 실태

흡연부스 재떨이 쓰레기통



▲학생들은 흡연부스 재떨이 쓰레기통에 종종 침을 뱉거나 더러운 이물질을 버린다. 한 씨는 흡연부스 재떨이 쓰레기통 청소가 제일 힘들다고 말했다.

분리수거 실태



▲종이컵만 버려야 하는 쓰레기통이지만, 학내 구성원들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학내 구성원들을 위해 학생관 앞에 비치한 쓰레기통이다. 이 사진은 학내 구성원이 헌수막을 아무렇게나 버려둔 모습을 담고 있다.

누군가의 새벽이 만들어낸 당연한 하루

캠퍼스의 아침을 여는 사람

새벽 4시 50분. 해가 한창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다. 사방이 어두컴컴한 학교 건물에는 날이 추워진 탓에 한기만 가득하다. 청소 노동자의 계약상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그러나 이들 중 정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하면 일이 너무 많아 제 때 퇴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한이 들려든 찰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한꽃분(가명) 씨다. 어림잡아 3평 정도의 좁은 휴게공간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서둘러 담당 구역으로 향한다. 기자에게 “날이 추우니 단단히 껴입어야 한다”는 충고와 함께 그녀는 캠퍼스의 아침을 연다.

그녀의 평범한 땀, 우리의 평범한 일상

발걸음이 처음 다다른 곳은 강의실. 밤새 나온 쓰레기를 수거하며 야간 잔류 중인 학생들에게 “잠 좀 자면서 해라” 잔소리를 하는 그녀지만, 뒤돌아 서서는 “환풍도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밤새 작업하는 학생들이 안쓰럽다”며 속상해한다.

쓰레기통 열댓 개를 비우고 복도를 청소하니 벌써 한 시간이 지났다. 화장실에 도착한 그녀는 자연스레 라디오를 켜다. 라디오 소리를 벗 삼아 다 떨어진 휴지를 채우고, 휴지통을 비운 뒤 물청소를 시작한다. 락스칠, 물 뿌리기, 비질과 대걸레질까지 마쳐야 화장실 청소가 끝이 난다. 그동안 우리가 화장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그녀에게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온 지 오래지만, 청소를 대충 할 순 없다.

그녀의 땀은 곧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 땀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는 아직도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엄마’의 마음으로

오전 6시 40분. 그녀가 청소하면서 모은 쓰레기 더미를 하나씩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기자가 한번 들어보니 일반 여성이 혼자서 들기에는 벅찬 무게였다. 게다가 음식물이 들어있는지 찢어진 쓰레기봉투 틈으로 정체 모를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닥에 흘린 액체를 닦기 위해 지나온 길을 다시 되돌아간다. 바닥을 손걸레로 다 닦고 나서야 그녀는 허리를 제대로 펴 수 있었다.

힘겹게 도착한 분리수거장에서 그날의 첫 분리수거가 시작됐다. 그녀는 사람 몸집 만한 쓰레기 더미 3개를 한 개씩 분해한다.

“쓰레기통이 분류돼 있으면 뭐하나. 학생들이 도통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 하는 수밖에.”

그녀는 온갖 음식물과 쓰레기가 뒤섞여 악취가 나는 쓰레기 더미를 아무렇지 않은 듯 익숙하고, 빠르지만 정확하게 분리수거한다. 그녀에게 “그런 학생들이 많잖아”고 물었다.

“학생들이 밟긴 뭐가 미워. 자식 같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수거 하는 거 알면 그랬겠어?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돌아오는 대답에서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이 느껴진다. 방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머니가 자식을 미워하지는 않듯, 그녀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학생 모두의 얼굴을 알 수는 없지만, 모두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청소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다.

늘 고된 보통의 하루

120개가량의 컴퓨터를 하나하나 닦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니 그새 다시 쓰레기가 늘었다. 오전 8시 10분. 두 번째 분리수거가 시작됐다. 곧 학생들이 등교할 시간이다. 그녀의 손이 더욱 빨라진다. 배가 고프지만, 아침 식사를 할 여유는 없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근무 시작 3시간 만에 그녀가 거친 숨을 내뿜으며 연거푸 “힘들다”를 반복한다. 긴 세월 동안 매일같이 했던 일인데도, 그녀는 매일이 힘들고, 지친다.

끝나지 않는 하루

층계를 오가며 같은 작업을 반복하니, 어느덧 오전 11시다. 출근 6시간 만에 찾아온 휴식시간. 집에서 싸온 밥과 반찬으로 허겁지겁 허기를 달래고 나면 한숨 자야한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오후 근무시간에 몸이 곳곳이 쭈시기 때문이다.

한숨 돌리고 나서 강의실·화장실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고, 분리수거를 반복한다. 그러다 보면 퇴근할 시간이 금방 찾아온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집에 가면 밀린 집안일이 남아있다. 어느 주부가 그렇듯 식구들을 위해 저녁밥을 안치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마쳐야만 그녀의 하루가 마무리된다. 그녀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렇게 그녀의 두 번째 하루가 다시 시작된다.

봄을 부르는 마법, 같이의 가치

청소노동자와 학교·용역업체 사이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이 갈등은 1987년 발생한 노동자대투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투쟁 이후, 생산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이 개선됐고,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상충으로 이어졌다. 이후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핵심 업무 이외의 업무를 외주로 돌리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간접 고용’ 방식이 자리 잡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하지만 ‘간접 고용’ 방식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가 아니었다.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재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노동자로 하여금 고용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청소노동자들은 ▲고용 승계 개선 ▲임금 인상 ▲고용 불안 개선 ▲처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이는 결국 대학가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사갈등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일부 대학은 용역업체와 계약하던 간접 고용 방식에서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들은 아직도 간접 고용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이들의 갈등은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리대학의 상황은 어떠한가? 본교는 2015년 하반기부터 간접 고용 인력을 점차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해왔다. 만약 결원이 발생하면 직접 고용 형태로 채용하겠다는 것이 현재 학교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순선(총무인사팀) 차장은 “우리대학은 청소노동자들이 학내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간접 고용 인력 중 희망자에 한해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학교 청소노동자 중 36명이 직접 고용 방식으로, 5명이 간접 고용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이들 중 간접 고용된 5명은 올해 12월, 계약이 만료된다.

이에 대해 정 차장은 “인력 공백은 12월 중으로 공개채용을 통해 충원할 예정이며, 이후 1년 동안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직접 고용 방식으로 계약한 청소노동자의 처우는 얼마나 개선됐을까?

현재 우리학교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대우하고 있다.

정 차장은 “복무규정과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직접 고용한 청소노동자에게도 모든 직원과 동일하게 61세 정년퇴직을 보장하고 있으며, 복지혜택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 대학에 비해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우리대학이지만,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내 청소노동자의 삶을 밀착 취재한 결과, 기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먼저, 청소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열악한 생활공간’이다. 청소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휴게공간에는 보일러 배관이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아 난방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문틈으로 외풍이 들어와 문을 닫아도 실내가 몹시 추웠다.

이에 대해 정 차장은 “청소노동자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지원팀에 확인을 부탁했으며, 시설을 보완하기로 결정한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학생들의 분리수거 실태’다. 우리학교 학생 대다수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쓰레기통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투기하고 있다. 쓰레기 안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학내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공학관·창의관·미래관·우촌관에 위치해있는 분리수거장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버젓이 마련돼 있는데도 학생들은 귀찮다는 핑계로 커피 등의 액체를 일반쓰레기통에 투기하거나, 음식물 찌꺼기를 변기에 투기해 변기를 막히게 한다.

취재 결과, 청소노동자들은 한번 분리수거를 진행할 때마다 25분가량을 소요했다. 또, 이 작업을 하루에 5~6차례 반복

했다. 학내 구성원들이 제대로 분리수거를 했다면 하지 않아도 됐을 일에 매일 2시간 이상을 허비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청소노동자들을 학내 구성원으로서 존중하고, 이들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 그저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 한번 건네면 그만이다. 그리하면 우리학교의 아침을 여는 41명의 한꽃분 씨에게도 언젠가 봄이 찾아오지 않을까.

